

굿모닝인천

2007.4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물길 여니 세계가 열린다



김재열 作 · 아크쉬 위 수채 · 117×91cm · 2005

갑도를 따라 출항하는 거대한 화물선과 관제탑이 보이는 풍경이다. 세계 최대 조수간만의 차를 인공 항만으로 극복한 갑문식 도크는 2중으로 설치된 내외 갑문이 축항 수위와 뱃길의 수위가 같아지면서 내측갑문이 닫히고 외항의 수위가 같아지기를 기다려 외측 갑문을 열고 서해로 출항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흥미로웠다.

최종 갑문이 열리면서 화물선이 축항으로부터 서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이곳은 인천관광명소로 충분하다. 인천항의 상징이기도 한 갑문식 도크의 정경은 개항의 역사와 함께 인천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 김재열 -

Good Morning INCHEON

| 2007년은 아시아 게임 유치의 해 |



COVER
도화동 인천전문대 교정에 핀 벚꽃

contents APRIL 2007 통권 160호



04	Zoom In	2007 인천 아시안축제 한마당
06	인천의 봄맞이	문학산 일대 기행
10	4월의 맛	밴댕이와 주꾸미
14	그린인천	생태학습 프로그램
18	글로벌 인천	송도 UN APCICT 교육현장
21	Healthy life 건강백세	요동
22	정보뱅크	인천의 과학프로그램
26	굿인천 굿뉴스	아시아게임 유치위, 재외공관장 초청 설명회 외
29	I · F · E · Z News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립공사 기공식 외
30	시의회소식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기념 시식 외
32	이젠 세계다	짬뽕이와 졸부의 갈림길 팁
33	리포트	첨단기술 파수꾼 국가정보원
34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소액 임차인이라도 방심은 금물!
35	김치 찰카	독자사진 공모
36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서해 바다의 '수호천사'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난함 3005함
40	이달의 공연	극단 <마디> 제4회 정기공연 '당신, 어디 계세요?' 외
4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월 기획공연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42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 '봄날'
43	한중문화관 이소룡 영화제	신화가 된 이소룡, 그는 죽지 않았다
44	인천이 담긴 詩 ④	한상역의 마이산
46	꿀돌이 · 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④	인천 최초의 서구식 학교 영화학당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조혜경 씨
52	독자글 마당	이번달 주제 '나무'
54	Info Box	2007년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열립니다 외
58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연평도가 그리운 밥도둑 '조기'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STO





국경 없이 하나 되는 아시아 더불어 함께 사는 인천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심영보 시 공보관실

이날 만큼은 피부색과 언어만 달랐을 뿐, 삼산월드체육관은 하나의 국경 없는 공동체였다. 함께 어우러진 그들 모두 '아시아' 이란 이름아래 하나였다.

인천시민과 함께 아시아 각국의 산업근로자들이 '더불어 사는 기쁨' 을 만끽하는 한바탕 축제가 지난 3월 18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펼쳐졌다.

'2007 인천 아시안축제 한마당' 은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기원과 30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화합의 장이다.

이날 축제 한마당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국회 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 최용규 의원, 이상수 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광부 차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했고 동남아 지역 등 9개국에서는 영사 등 외교사절을 보내 행사를 축하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근무하는 1천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천시민 등 5천여명과 함께 한바탕 신명나는 놀이판을 연출했다. 그들은 각종 프로그램과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인천의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이달 17일 쿠웨이트에서 개최지가 결정되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인천유치를 함께 기원했다.

오전 10시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큰 북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국 음악공연과 인천시립무용단의 한국전통무용, 아시아 각국 전통무용 공연을 비롯해 국가별 패션쇼, 비보이 배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됐다.

문화체험 부스에서는 민속널뛰기, 제기차기, 대형웃놀이 등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신나는 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인도네시아 출신 코망 슈안 타라 씨 등 7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수외국인산업근로자상을 시상하며 격려했다. ♪





배곶산에서

인천의 실루엣 보다

‘황해 푸르러 멀리 퍼지고 구연한 문학의 정기 감도는 여기는 내 고향 인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인천시민헌장>의 한 구절이다. 인천에는 웅(雄)한 산, 장(壯)한 산은 없지만 시민 모두가 경외심을 갖는 문학산이 있다. 인천의 땀줄이 묻힌 산, 문학산을 트레킹하며 상춘(常春) 했다.

글 · 사진 · 유동현 본지 편집장

쑥과 냉이의 춤사위

해발 213m의 문학산은 학이 많아 학산(鶴山) 혹은 옛 인천도호부 남쪽에 있다하여 남산(南山)이라고 불렀다. 이는 당시 먹물개나 먹은 양반네들이 부른 이름이었고 민초들은 그냥 ‘배곶산’이라고 불렀다. 산꼭대기에 봉수대가 있어 마치 사람이 배곶을 드러내놓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30년 전까지 만해도 동네사람들도 배곶산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더 정감있다.

문학산 오르는 길은 선학동, 문학경기장, 학익동, 문학터널, 시립사격장 등 갈래가 많다. 문학산과 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연경산 그리고 노적봉까지 종단하기 위해 선학동 윤성아파트에서 출발해 옥련동 시립사격장까지 가는 가장 긴 코스를 택했다. 약 4km에 달한다.

윤성아파트 뒤 무주삿길을 따라 가면 바로 문학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이 나타난다. 양지 바른 곳에 푸릇 푸릇한 기운을 띤 쑥과 냉이가 바람결에 춤사위를 하며 등산객을 맞는다. 산 품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자 진달래, 개나리 등 봄기운에 취해 서로 다투어 개화를 뽐내는 봄꽃들의 기세가 웅만하다.

어디선가 바람결에 함성소리가 실려 온다. 북소리도 함께 울린다. 비류의 군대인가. 북쪽 고갯길을 넘어 문학벌을 내려다보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문학경기장에서 프로축구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



다. 산에서 내려다본 문학경기장은 흰 돛을 단 거대한 범선이다.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조각들이 마치 바닷물결처럼 보이며 문학경기장은 망망대해를 향해 힘찬 출항을 할 태세이다.

그림자까지 노란 산수유나무

지금까지 수월하게 올라온 길에 비해 약간은 숨찬 코스를

거치고 나면 사방이 트인 산등성에 올라선다. 문학산은 조금만 올라가도 인천풍경을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을 만큼 시야가 좋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바다. 멀게 느껴졌던 바다가 바로 코앞이다. 살짝 기운 해 때문에 바다가 은빛으로 잘게 쪼개져 반사되고 있다. 하얀 바다에 물새가 내려앉은 듯 점점이 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시나브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해는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송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언뜻 보면 송도국제도시의 위용이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은 실제상황이다. 특히 한창 건설 중인 포스코 주상복합빌딩 4개동이 마치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돌기둥처럼 거대하게 솟아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이내 정상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철조망이 앞으로 가로 막는다. 배꼽이라 불리는 정상에 밭살스럽게도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민간인 통제선이다. 아쉬운 대로 남쪽 우회등산로로 길을 잡았다. 부대 바로 밑으로 난 등산로는 다소 길이 험하다.

휘어진 산비탈에 봄의 전령 산수유나무가 노란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림자도 노랗다' 라고 어느 시인은 노래했는가. 4월이지만 아직도 겨울의 잔재가 남아 있는 푸석한 산에 몇그루 산수유나무가 생동감을 불어넣어준다.

군데군데 막돌로 쌓은 산성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남쪽 산허리에 걸쳐 문학산성의 잔재가 길게 이어진다. 산꼭대기에 천혜의 요새를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구국의 의지가 지금까지 전수된 것일까. 그곳에는 아직도 군사시설이 인천 앞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땅의 한계와 바다의 무한

낭떠러지길을 조심스럽게 돌아 문학산과 연경산이 이어지는 산허리로 내려왔다. '사모지 고개'로 불리는 이곳은 옛날에 도호부청사 쪽에서 청학·동춘·연수지역과 연결되던 교통로였다. 그래서 백제시대에 바닷길로 중국으로 갔던 뱃터 능허대라고 하면 이 고개를 넘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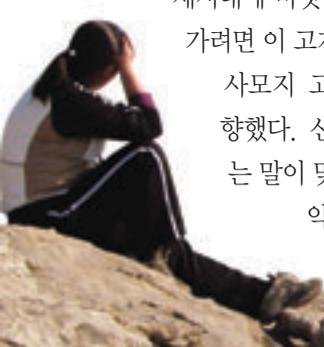
사모지 고개(삼호현)에서 연경산 정상으로 향했다. 산길은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좀 심심하다.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코스이기도 하다. 중간에 키 작은 소나무 숲이 잘 정돈된 곳이 있다. 솔밭에 잠시 앉으니 솔 냄새가 코를 간질이고 뇌를 시원하게 해준다. 세파에 찌든 때가 씻겨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약간의 오르막을 거치니 정자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산이름을 따서 '연경정'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연경산 봉우리는 인천의 산세를 살피기에 아주 좋은 뷰포인트이다. 철마산과 계양산의 이어짐, 소래산과 관모산의 연결 선 그리고 청량산과 문학산의 끊어질 듯하며 계속되는 산줄기.

정자를 뒤로 하고 또 하나의 고개를 넘는다. 노적봉 가는 길이다. 203개의 나무계단이 기하학적으로 하늘을 향한다. 한남정맥으로 시작된 산줄기의 기나긴 선이 휘이 휘이 달려와 문학산과 연경산 그리고 노적봉을 거쳐 해안선에서 멈춘다. 땅의 한계와 바다의 무한이 교차되는 접점에 조망대가 서있다. 산의 끝점에서 바라 본 바다에는 선홍빛 물감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어느덧 서쪽 하늘에는 장엄한 노을 쇼가 펼쳐지고 있었다. ♡



소서노와 비류 그리고 인천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주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소서노와 비류가 인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史實)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인천역사에서 최초의 국가 집단 미추홀을 형성한 것이 비류집단이고 이의 근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소서노였다.

삼국사기에 보면 소서노는 졸본부여의 5부족 중 하나인 게루부의 공주로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아버지 연타발의 뒤를 이을 왕자로 주목받고 있었다. 29세의 나이에 21세의 고주몽과 결혼해 함께 통일제국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여걸 소서노. 본부인 여씨와 유리왕자의 출현으로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하해 새로운 왕국을 세운 그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두 나라를 세우는 여걸 중의 여걸이었다.

인천의 주산인 문학산은 2천여년 전의 백제 건국 설화가 담겨져 있는 곳이다. 일찍이 비류가 AD18년을 전후해서 '미추홀'이란 나라를 세웠던 인천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지> 등 옛 문헌을 살펴보면 이곳이 옛 미추홀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척박한 환경 때문에 미추홀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소서노와 비류의 개척정신은 오늘날 인천사람들의 핏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문학산이란 이름은 <여지도지>에서 처음 나온다. 이 산 주변에는 미추홀 왕국과 옛 인천의 유적들이 숨겨져 있다.

<여지도지>와 <인천읍지>에는 부읍 남쪽에 미추홀 왕릉이 있다고 전한다. <인천읍지>에는 '부읍 남쪽 남산(문학산)에 미추홀 왕릉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능이 있는데 봉분이 헐리고 망부석이 넘어져 방치된 채 흉하다' 라고 전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문학성의 둘레가 403척이며 정상에는



토성으로, 그 외각에는 돌로 쌓은 성이 이중으로 조성됐다고 기록한다.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 김민선 부사가 백성과 함께 힘을 합쳐 성을 개축하고 왜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 왜군을 물리친 철옹성이기도 하다.

문학산 정상 북쪽 석벽 뒤쪽에 있었던 안관당은 임진왜란 때 문학산성을 지키다 순절한 김민선(1542~1593) 인천부사를 모신 사당이다.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읍민이 다같이 제사를 올렸는데 이 제사는 그 후 200여년 동안 이어졌고 사당이 헐려 없어진 후에도 계속되어 6·25 동안 때 까지 이어졌다고 전한다.

산 정상에는 '비류정'이란 우물이 있었다. 1778년에 쓰여진 <동사강목>에는 '성 안에 비류정이 있어 그 물맛이 시원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6·25 직전까지 우물터가 있었으나 전쟁 중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우물이 훼손되어 없어졌다고 전한다.

문학산의 봉우리와 노적봉 사이에 관교동에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긴 고갯길이 있는데 이 길을 삼호현, 함호재고개, 혹은 사모지고개라고 부른다. 이 고개는 백제의 근초고왕 때(372년)에 중국으로 가는 바닷길을 연 한나루(능허대)로 가는 길목이다. 지금부터 1600여년 전 백제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이 고개를 넘으면서 사신을 배웅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나누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까지 따라온 가족이나 친지들이 능허대 쪽으로 멀어져 가는 사신이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빌면서 세 번 크게 불렀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학산서원은 1708년(숙종34) 인천부사를 역임한 이단상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문학산 북에 창건한 인천서원에서 출발한다. 같은 해 '학산(鶴山)'이란 액호를 받으며 명칭이 바뀐다. 학산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인천의 학문적 기반을 넓혀가다가 1871년(고종8) 전국적으로 단행된 서원 정리 정책에 의해 사라진다. 지난 2004년에 학익동 방향 문학터널 북쪽 입구 위에 서원터 비석을 세웠다. 🍵



▲ 드라마 속 소서노와 비류





속 좁아도 맛있다 밴댕이 못 생겨도 맛있다 주꾸미

오뉴월 들판의 보리가 누룻누룻 익어갈 무렵이면 밴댕이 맛은 그야말로 물이 오른다. 이에 뒤질 세라 주꾸미 볶는 냄새가 인천 이곳저곳에서 진동한다. 이들 때문에 인천의 4월은 새콤달콤하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한 자유사진가

니 성질, 감칠맛 때문에 용서된다

값싸고 고소한 맛으로 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밴댕이 계절이 왔다.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대로 밴댕이는 그물에 닿기만 해도 제 성질에 못 이겨 파르르하며 죽어버리는 성질이 제법이다. 어부들조차 살아있는 밴댕이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성질이 ‘지랄 맞지’만 혀끝에 와 닿는 감동 때문에 모든 게 용서 된다.

밴댕이의 주 어장은 강화군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 선수포구는 밴댕이 잡이 배들의 베이스 캠프이다. 이정표의 정식 명칭이 ‘후포항’인 선수포구는 갯내음이 물씬 풍기는 강화도 남서쪽의 자그마한 포구. 하루 평균 10여 척의 어선이 상시 출조하는데 많을 때는 하루 수십여 톤의 밴댕이를 포구에 쏟아 놓는다.

선수포구에는 모두 10여 곳의 횃집이 바닷가를 따라 죽 늘어서 있어 밴댕이 횃집촌을 이루고 있다. 그곳에 가면 바다냄새 감도는 싱싱한 밴댕이 한 접시에 갈매기 구경, 통통배의 추억까지 맛 볼 수 있다.

밴댕이가 가장 맛있을 때는 4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고소하고 달보드레한 게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껍질에 된장을 살짝 바르고 고



TIP

선수포구 인근에는 서해 낙조로 유명한 장화리 낙조 조망지가 있다. 강화도의 형제 섬 불음도, 아차도, 주문도 뒤편으로 훑시 같은 발간 해가 넘어가는 광경은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볼거리. 포구 한쪽편의 해안갯바위에선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으며 마니산 등산로와 포구가 바로 이어진다. 감칠 맛 나는 밴댕이 회 맛에 낚시, 등산까지 일석삼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선수포구에서도 석모도까지 가는 카페리가 있다. 밴댕이를 먹고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보문사, 어류정향 등을 둘러보고 나와도 반나절이면 된다. 선수포구는 강화대교를 건너 경주 강화읍에서 왼쪽 우회도로를 이용해 찬우물고개-운수리를 거쳐 348번 도로를 탄 뒤 화도읍을 거쳐 들어가면 된다. 초지대교를 건너면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전등사 방향으로 다시 좌회전하면 선수포구로 이어지는 직선도로를 탈 수 있다.





▲ 선수포구

추냉이간장을 문힌 밴댕이를 써서 먹으면 꺾잎의 씹살한 향과 밴댕이의 고소한 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뼈를 발라내 얇게 썰거나 뼈째 썰어내는 횡감의 경우 1kg에 1만5000원을 받는데 보통 25~30마리 정도가 재료로 쓰인다. 횡감 외에도 구이, 무침, 튀김 등이 있으며 최근에 밴댕이 완자탕을 선보이고 있다.

밴댕이는 잡아온 지 12시간 정도까지는 횡감으로 쓸 수 있으나 그 이상 지나면 젓갈용으로 사용한다. 물 좋은 밴댕이는 회로 내놓았을 때 등에 은빛이 흐르고 반들반들 윤기 나며 살색이 하얗다. 물이 가면 비린내가 많이 난다. 싱싱한 것은 몸길이가 15~18cm 정도로 한 마리가 회 한 점이다.

회 뜨고 나면 얇은 뼈와 머리가 남는데 이것은 포구에 노닐고 있는 갈매기들의 좋은 밥이다. 바다를 향해 높이 던지면 날쎈 날개 짓을 하며 순식간에 채간다. 식후에 갈매기와 함께 노는 재미도 쏠쏠하다. (문의 : 선수포구 어판장 ☎937-8702)

인천 시내 한복판에서도 맛있는 밴댕이를 맛볼 수 있다.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옆 특색음식거리에는 오히려 ‘밴댕이 골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밴댕이 전문식당 10여 곳이 몰려 있다. 이밖에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못 미친 건물에는 금산식당, 송원식당, 다복집 등 밴댕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니 외모, 몸보신 때문에 용서된다

춘분 지나니 바닷바람엔 상큼 짭짤한 봄맛이 실려 온다. 서해바닷가에서는 싱싱하고 구수한 봄맛 잔치가 시작된다. 잔치판의 주인공은 한창 맛이 오르고 있는 주꾸미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란 말이 있듯이 주꾸미는 산란기를 앞둔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가 가장 맛있다. 통통하게 데친 주꾸미 몸통 하나를 입 안에 쏙 넣어, 어금니 밑에 슬며시 넣고 오물오물 살짝 씹으면 속살이 말강말강 터지며 쌀알 같은 주꾸미 알이 탱글탱글 씹힌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 바로 먹물이 펍...! 입안에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먹칠한 입은 고소함에 저절로 해별쪽 해진다.

낙지보다 작지만 연하고 쫄쫄득득해 씹는 맛이 일품인 주꾸미는 지방이 1%밖에 안된다.



또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먹물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간에 좋은 작용을 하여 하루의 고단함을 씻는 데 도움을 주며 남성 스테미너 증진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름도 촌스럽고 다소 불품없는 이 연체동물이 인천의 미식가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구)만석고가 밑에서 40년 전 포장마차의 한 메뉴로 시작한 '할머니주꾸미집' (☎773-2419)이 그 시초이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주꾸미를 볶기 시작했다.

주꾸미는 '소라방' 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어로 방법으로 잡는다. 소라껍데기를 매단 밧줄을 수심 10m 안팎의 연안 바닥에 깔아놓는다. 그러면 알 낳을 곳을 찾아 바닥을 기어 다니던 주꾸미들이 들어가게 된다. 어민들은 파도가 잔잔한 날 바다에 나가 줄을 당겨 올려 주꾸미를 수확한다.

주꾸미 철이 되면 북성포구에는 이 소라방을 가득 실은 어선들이 들어찬다. 배에서 내려진 생물 주꾸미들은 바로 주꾸미 골목으로 수송된다. 알이 딱 찬 주꾸미와 갖은 야채를 고추장에 볶아 내는 주꾸미볶음(1만~3만 원)이 일품이고 주꾸미 샤브샤브도 추천 메뉴이다. 7,8개 주꾸미 전문점이 몰려 있는 만석동 주꾸미골목은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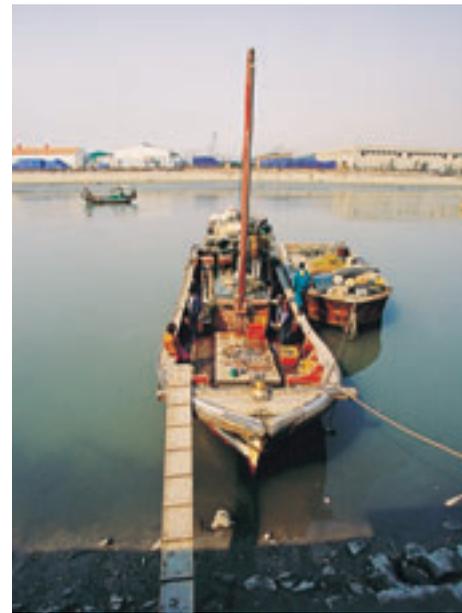


TIP

주꾸미 골목 인근에는 북성포구가 있다. 그곳에 가면 20, 30년 전 인천의 모습이 어렵듯이 보인다. 번듯한 접안시설 하나 없는 그 포구는 마치 도시의 뒷간처럼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채 버려진 포구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30여척 어선들의 어엿한 안식처이다.

만석고가로도 밑에서 만석3차 아파트 옆 바다 쪽으로 향하면 대원조선소가 나오는데 그 담장 골목길로 들어가면 믿겨지지 않는 곳에 포구가 자리잡고 있다. 바다로 다가서자면 작은 시장통 같은 횃집 골목부터 거쳐야 한다. 바닷쪽의 횃집들은 일종의 수상(水上)가옥으로 밀물 때는 마루바닥까지 바닷물이 차랑거린다.

배 들어올 시간을 용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밧을 채 내리기도 전에 갑판에 올라가 할렝거리는 물고기를 즉석에서 흥정해서 산다. 몇 마리의 물고기는 그곳 횃집에서 바로 횃감이 된다.



▲ 북성포구

황복 앞에선 모든 물고기 '황복'



진달래 필 때쯤 되면 뱀뱀이나 주꾸미 외에도 황복이 입맛을 다시게 한다. 강화도 창후리 포구는 1년 내내 황복을 맛볼 수 있는 '황복마을'로 유명하다. 창후리 포구는 바로 앞에 석모도와 교동도를 마주하고 있으며 주변 앞바다 일대는 비무장지대(DMZ)다. 부근 해안 어장은 한강은 물론 임진강과 예성강 등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생선들의 맛도 뛰어난 편이다.

황복은 복어 중에서 으뜸으로 친다. 식도락가들은 복 중에서 가장 맛있는 복이 바로 황복이라고 하며 소동파를 위시한 옛 문인들은 황복 맛을 가히 목숨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황복은 바다에서 살피우고 살다가 4~5월 봄철 산란기가 되면 연안을 지나 강의 하구로 접어든다. 이때 강화도 어부들에게 잡혀 미식가들의 밥상에 오르는 것이다.

어부들은 황복을 '황금물고기'로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 그도 그럴 것이 1kg에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니 강에서 잡는 물고기 중에 이보다 값이 더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단골이나 예약손님이 아니면 그 맛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니 황복이 아니라 '황금복'인 셈이다.



그린인천 | 생태학습 프로그램

췉, 들꽃이 속삭이는 소리 들려요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사람뿐이 아니다. 봄을 준비하는 것은 꽃이나 나무, 자연이 먼저일 터이다. 이제 곧 아지랑이 피는 들판에서는 저마다의 향기와 색을 가진 푸른 생명체들이 존재의 가치를 알리려 아우성을 칠 것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시 녹지조경과

숲아, 놀자~ 인천 숲 생태 체험

○ 리시 녹지조경과에서는 '인천 숲 생태 체험'을 5월부터 11월까지 학생,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100회에 걸쳐 마련한다. '숲과 나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 산림욕장과 강화군의 덕산산림욕장에서 열린다. 각각의 산림욕장에는 2km에 이르는 생태관찰로에 숲해설관, 생태해설관 등이 설치돼 있다. 해설관만 보고도 숲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지만 숲해설사가 함께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니 '아는 만큼 이해' 하게 된다.

또 '바닷가에 사는 동식물'을 알아보기 위해 덕적도 서포리산림욕장과 무의도 호룡곡산 산림욕장에서도 체험이 진행된다.

숲생태체험은 평일은 학급단위 신청으로 운영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인별로 신청해 참가할 수 있다.

문의_시 녹지조경과(440-3683)

방계야, 칠계야 같이 놀자

소래포구 입구에 자리 잡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옛 염전, 갯벌체험장, 사진전시관 등이 있어 굳이 바닷가에 가지 않더라도 갯벌에서 뛰놀며 갯벌 생물을 관찰하고 염생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올해는 샤워시설 등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라 갯벌체험장은 이용할 수 없어 아쉽다.

동부공원사업소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은 단체 예약을 하면 생태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염전에서 소금이 나오

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운이 좋으면 직접 소금을 채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캐낸 소금은 어디로 갈까? 그 궁금증은 소금을 저장하는 창고에서 해결된다. 이제 옛 염전에서 자라고 있는 식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래 옛모습 사진 전시관에서 소래와 인천의 옛 사진도 둘러보면 탐방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해양생태학습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체 예약만 가능하다. 전화로 매월 초에 다음달 일정을 예약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하루에 2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이 아니라면 주말 등을 이용해 개인별로 찾는 것은 연중무휴 가능하다.

문의 및 예약_수도권해양생태공원(435-7076)

반갑다 월미산아

월미산은 1966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의 하나이다. 1945년부터 미군에 의해 군사기지화 되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지난 2001년 10월 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56년 동안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덕분에 자연 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생태체험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월미산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일반시민과 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준에 맞춘 '생태교실'이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생태교실에서는 4월에는 봄을 맞는 월미산의 생태계를 알고 나무의 물오름을 듣는가 하면, 5월에는 천연



염색하기, 6월은 숲에 사는 곤충 찾아보기 등 계절에 맞는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봄과 여름에는 나무 목걸이 만들기, 손수건에 꽃물 들이기를 하고, 가을에는 들풀로 곤충 만들기, 나무뿌리 다리기, 단풍은 왜 드는지 알아보기 등을, 겨울에는 곤충의 겨울나기와 나무의 겨울눈 알기 등 자연관찰과 체험 등 현장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월미산지기’로 불리는 자연환경안내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서부공원사업소 생태교육장과 월미산 일원을 누비다 보면 어느새 자연 속에 푹 빠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각 학교별 신청은 우편이나 월미산지기 홈페이지(<http://cafe.daum.net/wolmizikim>)에서 할 수 있다.

문의_시 서부공원사업소(440-4623)

예쁜 꽃 맘껏 즐기자

서구 연희동에 자리 잡은 우리시 녹지사업소에는 떡갈나무 등 75종에 이르는 교목과 다래나무 등 13종의 관목, 야생화 30종 이상이 자라고 있고 300평 규모의 온실, 2천평 규모의 채소밭 등이 있어 나무와 꽃, 자연에 대해 알아보기 적당하다. 녹지사업소는 초등학교생과 유치원생, 장애인과 독거노인,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3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체험 ‘그린스쿨(Green School)’을 운영한다. 탐방로 주변의 나무와 풀, 꽃이름의 유래를 알아보고 오감을 통한 교육, 나이트 견학, 곤충 및 벌레들의 역할 교육, 죽은 나무의 역할 교육 등과 나무와 꽃심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후에는 소감문을 쓰고 잘 쓴 소감문은 시상도 할 계획이다.

4월부터 운영되는 그린스쿨은 인터넷과 우리시에 있는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학교 숲 조성 대상인 100개 학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_시 녹지사업소(440-6190)



숨쉬는 숲에 가보자

관모산과 상아산을 품고 있는 동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이 있어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인천대공원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도시녹지 생태교육지도자가 안내를 맡고 자원봉사

■ 인천대공원 생태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일	운영시간	대상자	인원
1회성 프로그램	오목눈이자연학교	4~6월, 9~12월	10:00~11:30	제한없음	40명
	숲속자연학교	매주 화, 수, 금요일	1:30~3:00		40명
	노을자연학교	홀수주 토요일	3:30~5:00		40명
	개구리자연학교	4~6월, 9~10월	10:30~12:00	가족단위	8가족
딱따구리자연학교	토(찍수주)	2:00~3:30	8가족		
연속성 프로그램	애벌레자연학교	4~6월 매주 토	10:00~11:30	초등학생~중학생	10명
하계방학 프로그램	매미자연학교	7~8월 매주 화, 수, 목, 금	10:00~11:30	유치원~초등학생	20명



자가 함께해 자연생태원과 관모산 일대를 누빈다.

일회성으로 열리는 자연학교에서는 식물의 의식주 알아보기, 열매가 달리는 모양 관찰하기, 낙엽이 만들어지는 과정 관찰하기 등과 꽃, 나무, 곤충, 열매 백배즐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히 애벌레자연학교, 매미자연학교 등에서는 자연과 친해지는 방법, 수서생물과 친해지는 법, 숲속 친구 사귀기 등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려 학습이 아닌 놀이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_동부공원사업소(440-4952)



왜 숲 생태 체험인가?

우리는 그동안 여러 사업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숲 생태 교실을 추진해 왔다. 숲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생산하는 환경자원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터전이다. 자연과 인간, 야생동물, 곤충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자연을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장소로서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분산돼 있는 교육을 통합하고 보다 업그레이드 된 교육으로 발전시켜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과 연계한 ‘인천 숲 생태체험’ 사업을 추진한다. 숲과 나무, 바닷가의 생물 등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자연산물을 활용한 살아있는 체험학습으로 진행될 ‘2007 인천 숲생태 체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태 체험에 나서는 것이다. 인천의 주요 숲과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해야만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은 더불어 커질 것이다. ♡

차 | 한 | 잔

봄기운 받아 ‘생명의 숲 300만평’ 도 가지개 썩니다

시 녹지조경과장 | 한태일



우리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이어 민선 4기에는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를 통해 공원면적은 시민 한 명당 11.1평으로 늘려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한걸음 다가선다. 우리시가 녹지조경과를 중심으로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0년을 목표로 ‘Green Incheon Vision’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 녹지조경과 한태일 과장은 “인천에 대해 아직까지 회색도시, 공업도시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 브랜드를 바꿔 우리시가 추구하는 세계 명품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질을 높이는데 공원녹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고 말한다. 때문에 “도로 중앙선을 걷어낸 자리에 나무를 심고, 도심속 쉼터와 공휴지에 나무를 심어 휴식공간을 만드는가 하면, 학교에 생태 숲을 조성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는 수봉공원 AID이파트 자리에 수경시설을 꾸미고, 중앙공원에는

벽천 분수, 남동정수장 근처 도로에 실개천 조성 등으로 시민들 가까이 친수공간을 많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0년 까지는 인천국제공항 진입부, 송도석산, 문학공원 등에 12개의 인공폭포를 만들어 Green&Blue Network를 조성할 것입니다.”고 설명한다.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를 비롯한 도심권 웰빙 녹지 조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을 푸른 도시로 바꿔 인천을 세계 일류 명품도시 만드는데 우리 녹지조경과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는 한 과장의 포부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Green 인천에 대한 희망에 다름 아니다.



글로벌 인천 | 송도 UN APCICT 교육현장

‘전자결재’ 배우러 태평양 건너 송도에 왔어요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에 우리나라의 반기문 전 장관이 임명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커진데는 지난해 6월 16일 유엔 산하기구인 APCICT(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센터-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가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동지를 튼 것도 한 몫 한다. APCICT는 지난 3월 5일부터 첫 포럼과 교육 등의 행사를 갖고 기지개를 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아·태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견인차

지난 3월 5일 영종도에 자리 잡은 하얏트 호텔에는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티벳을 쓴 사람부터 말쑥한 양복차림의 사람까지 얼핏 보기에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차림새들이다. 이들은 바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62개 나라에서 초청된 고위급 관료 등 공무원들. APCICT가 개소 이후 첫 행사로 마련한 '정보통신기술 역량구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인사들이다.

이번 행사는 UN ESCAP 회원국 및 관련기관, 기업 등이 참석해 정보통신기술 역량구축을 위한 토의와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UN이 주관하는 최초의 행사라 그 의미 또한 각별하다.

3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포럼은 APCICT와 ESCAP가 주최하고 우리시와 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APCICT가 속한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의 공무원을 비롯해 UN 대표단, 기업체, 대학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보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3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구축의 현주소와 문제점, 국제사회·민간분야의 정보통신기술 구축 성공사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 등에 대해 여러 나라 참가자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나눴다.

포럼에 이어 7일부터 9일까지는 APCICT가 등지를 튼 경제자유구역청 내 강의실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APCICT의 첫 번째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피지, 중국, 인도 등 아시아와 태평양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62개 나라에서 초청된 고위급 관료 등 공무원들이 APCICT가 개소 이후 첫 행사로 마련한 '정보통신기술 역량구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포럼'에 참석했다.



을 건너온 21개국 31명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해 각 나라에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튿날에는 이론 교육에 이은 ‘현장실사’에 나섰다. SK텔레콤과 정부종합청사 내의 정부혁신관 등을 둘러보고 사례조사를 한 이들은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몸소 체험하고 각 나라에 적용할 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기구

APCICT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의 결의에 따른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나라 간 정보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 62개 나라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후보지를 물색했다. 우리나라는 IT의 허브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 우리시를 ‘국가대표’로 내세운 결과 UN ESCAP회원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시에 APCICT를 설립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IT기업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우리시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IT분야의 리더로서 확고한 주도권을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위상 강화 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APCICT는 지난해 6월 16일 개소식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교육센터를 마련했다. 우리시와 정보통신부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강의실, 2011년까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자금을 지원한다. 이 곳에서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62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정책결정과정과 IT전문·실무자들을 위한 관리자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에 나선다. 각 과정별로 일년에 4차례 정도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라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그것도 송도 국제도시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겨냥한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업체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IT분야의 주도권 쟁탈전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체험한 각 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좋은 인상을 받아 우리나라의 IT기술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돼 간접 수출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 | 한 | 잔

APCICT 이현숙 원장

인천과 함께 IT 허브 역할 해 나가야죠



“이번 행사가 아태지역 각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IT 수요를 분석하고 어떤 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아태지역에서는 정보격차가 없는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많은 노력들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UN APCICT의 이현숙 원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참가국 공무원과 기업체, 학계, UN 대표단 등 IT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참가해 지역 내 IT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총체적 논의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진일보한 계기가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APCICT가 기본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정보격차를 줄여나가는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로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위상이 높아 APCICT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분위기라고 생각된다”며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APCICT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IT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꼬부랑 할머니’ 되지 않으려면...



어느덧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르는 시대가 찾아왔다. 그와 더불어 실버산업과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특히 골다공증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병원을 찾는 대다수의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이러한 통증은 퇴행성관절염과 동반되어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뼈가 약해져 생기는 골다공증은 노인성 질환에서 항상 따라 다니는 수식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화장실을 가다가, 아니면 자리에에서 일어서다가 살짝 주저앉아도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를 먹어서 아픈거야.’ 하면서 이를 간과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무작정 참으며 지내다 보면 아픈 것도 낫질 않고, 점점 굽어져 가는 허리와 심해져 가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등 쪽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힘든 경우에는 압박 골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그냥 진통제만 복용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서 압박 골절이 생기면 그 주변 척추에 까지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척추의 압박 골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허리 보조기를 사용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보행이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병원을 찾아 척추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그냥 진통제만 복용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서 압박 골절이 생기면 그 주변 척추에 까지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척추의 압박 골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허리 보조기를 사용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보행이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병원을 찾아 척추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진단은 우선 단순 방사선 촬영과 골밀도 검사(BM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자기 공명 영상(MRI)을 통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자기 공명 영상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단순 압박 골절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에서는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부위의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의 치료로 척추체 성형술(Vertebroplasty)이나 풍선을 이용한 척추체 성형술(Kyphoplasty)을 시술할 수 있다. 이것은 수술이 아니어서

병원을 찾는 대다수의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이러한 통증은 퇴행성관절염과 동반되어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전신 마취의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이 짧으며, 시술 후 몇 시간 후에는 거동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이 짧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런 압박골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종양에 의한 병적 골절(Pathologic Fracture)에 의한 경우에도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의 경감과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발생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뼈에 압력이 가해지는 운동,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특히, 칼슘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 및 자외선을 통해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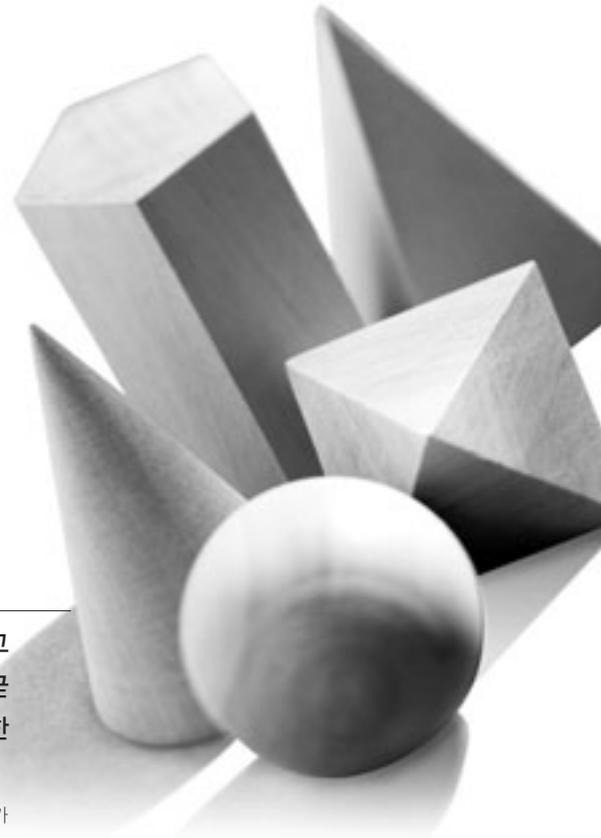


글 · 김민석 인천광역시의료원 정형외과5과장

‘리틀 아인슈타인’ 인천이 키운다

과학을 빼놓고 국가의 발전, 도시의 발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얼핏 멀게만 느껴지고 어려운 것 같은 과학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은 무궁무진하기만 하다. 굳이 4월이 ‘과학의 달’이라는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시는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등 ‘과학인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생활 속의 재미있는 과학, 동사무소에서 배워요

3월 중순 도화1동 주민자치센터의 다목적실.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 앉아있다. 아이들 앞에 선 강사 선생님이 물에 뜨는 나무와 가라앉는 쇳덩이를 비교하며 ‘밀도’가 무엇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이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하나로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동사무소에 마련한 재미있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우리시의 지원으로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다.

오늘 아이들이 해볼 실험은 ‘무지개 물 탑 쌓기’. 여러 색의 물에 각각 다른 양의 소금을 넣어 밀도를 다르게 하면 색깔 물은 서로 섞이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무지개색의 물 탑이 생기는 원리다. 줄곧 장난치고 떠들던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 놓여 있는 빨강, 노랑, 파랑... 화려한 색깔의 물이 담겨있는 7개의 비커가 본격 가동될 즈음에야 강사선생님께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의를 맡은 안기준 선생님의 시범 실험이 시작됐다. 먼저 흰색 물을 메스실린더에 담은 후 그 위에 파란색의 물을 조심스레 흘려 넣었다. 흰색 위에 파란색 물이 얇전히 쌓이자 아이들은 ‘와~ 된다’ 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채희영양(서화초 5)은 “학교에서도 과학을 배우지만 실험은 자주 할 수 없는데 수업시간에 들어본



것을 여기서 실제로 해보니까 특이하고 별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실험에 집중한다. 인천대에서 물리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안기준 씨는 “아이들이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생활과학교실은 우리시의 용현4동, 학익1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8동, 도화1동, 만수4동, 송현1·2동, 검단2동, 계산4동 등 10개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강의는 인천대학교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이 맡는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11주 과정으로 한 기수가 운영되는데 지난해에 이어 현재 2007년 2기가 운영되고 있고 5월부터 3기가 운영될 계획이다.

박인호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 더 많은 곳에서 생활과학교실이 열리기를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다”며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해 인천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과학교실은 평소 과학에 관심있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학생모집 일자를 참조해 등록하면 된다.

문의_생활과학교실 (www.scienceincheon.com/ ☎770-8926)

과학고에서 키우는 ‘과학영재’

인천과학고등학교(교장 조규호)는 과학영재를 키우는 연구학교, 소위 ‘특목고’이다. ‘고등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토요일이면 솜털 보송보송한 중학생들이 이곳을 접수한다. 지난해 ‘시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



기 때문이다. 우리 인천의 중학생 중에서 수학과 과학, 정보 분야에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일찌감치 발굴해 효율적인 영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해 1단계와 2단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377명의 학생을 추천받았다. 3단계와 4단계에 걸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탐구력, 논리력, 창의력을 종합 평가해 최종 36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4월 15일 개강식 및 특강을 갖고 본격적인 ‘영재교육’에 나섰다. 교육프로그램은 1학년 기초과정, 2학년 심화과정, 3학년 사사과정



으로 구성해 학교수업이 없는 격주 토요일에 4시간씩의 교육과 방학 중의 영재캠프 등 일년에 80시간의 교육을 진행해 지난 1월 2006년 수료식을 가졌다. 기초 과정은 통합과정으로 운영해 수학과 과학 분야의 기초적인 영재성을 높이고, 2학년 심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과학과 수학 과정으로 나누어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 아프거나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수업으로 생각하면 좀 섭섭하다. 수업은 탐구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수학, 과학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정보, 논술이 추가된다.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20명이 강사로 나서는데 사이버 과제학습이 부가되고 과학고 교사와 사사제 결연을 통한 멘토-ship 프로그램이 진행돼 사제간의 끈끈한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과학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실험 기자재와 교육매체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 과학의 기초는 물론 과학영재로 성장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반이 된다.

문의_인천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교육원
<http://www.i-science.hs.kr/> ☎746-8302

인천과학의 메카, 영종도

영종도에서는 과학 인천의 꿈이 영글고 있다. 과학인재들의 요람인 인천과학고등학교가 동지를 틀고 있는데다 교육과학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평운)에는 상설전시장이 있어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부터 생활속의 과학을 체험하려는 유치원생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지구가 이동했다는 대륙 이동설..., 과학이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던 친구들도 과학전시관에서는 쉽게 이론을 깨우치고 과학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머리로만 배우는 과학이론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이해하고 원리를 알게 되는 체험 현장이기 때문이다.

전시관은 1층부터 4층까지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 1층은 꿈돌이 관으로 과학놀이기구, 해양수족관, 민물, 열대어, 해파리 수족관 등이 있다. 2층은 자연 탐사관이다. 각종 광물과 암석, 지질시대 디오라마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과, 해양생태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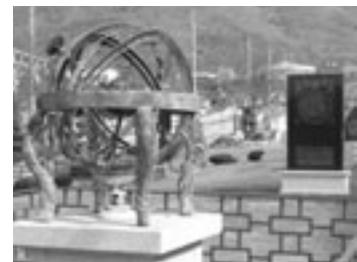


만 원 지폐 속의 전통과학, 여기 있었네

새로 만들어진 만 원짜리 지폐 뒷면에는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혼천의와 광학천체망원경,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들어있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천체관측기구로 알려진 혼천의 등 지폐 속에 숨은 과학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으니 반갑기 그지없다. 영종도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 야외전시관에서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야외전시관은 암석학습원과 전통과학학습원으로 꾸며져 있다. 그중 전통과학학습원은 우리 조상들의 과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과학적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 4월 꾸며졌다. 이곳에는 혼천의를 비롯해 규표, 소간의, 앙부일구, 일성정시의, 측우기와 측우대, 풍기대, 천상열차분야지도 등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특히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하늘 천체를 그린 석각천문도로서, 고구려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실물 크기의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오석 양면에 태조본과 속종본을 각각 복원 제작해 기존에 있던 혼천의와 함께 전시했다. 이로써 최근 발행된 1만원 신권 지폐에 인쇄된 전통과학 유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한편 3층 체험관에서는 중력,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고 4층의 미래과학관에서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등의 원리를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용안내_ 화요일~일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www.ienet.re.kr / ☎ 880-0792)

인천과학영재교육원 ‘최우수’

1998년 인천대학교에 설립한 인천과학영재교육원(원장 최원)은 독특한 영재를 일찌감치 발굴한 뒤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 일꾼을 키워내는 곳이다.

인천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기초와 심화, 그리고 사사로 나뉘어진다. 기초를 마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고 특별히 뛰어난 학생들은 교수와 1대 1로 수업하는 사사과정을 밟게된다. 초등과정엔 수학, 과학, 정보과학 세 개의 반이, 중등과정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등 여섯 개의 반이 있다.

‘특별’ 수업을 받는 만큼 선발도 까다롭다. 수학과 과학 분야의 학교 성적이 상위 10%에 드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지필고사를 1차와 2차에 걸쳐 치러내고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까지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만 교육생 자격이 주어진다.

수업은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맡고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천지역의 교사들도 함께한다. 온라인교육을 비롯해 토요일을 이용한 학기 중 교육과 방학 중 집중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이 이뤄지는 수업풍

경은 교실과는 사뭇 다르다. 주로 실험을 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며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우리시와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곁들여진다.

덕분에 인천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평가에서 9년 연속 전국 25개 영재교육기관중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그 명성을 전국에 드높이고 있다. ♪

문의_ 인천대학교 인천과학영재교육원

(http://isep.incheon.ac.kr / ☎ 770-8917~8)



과학 체험 함께 해요~

과학의 달을 기념하는 과학체험전 행사가 우리시의 후원으로 (재)송도테크노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송도국제도시의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현장을 견학하고 과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열린다.

1. 송도국제도시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현장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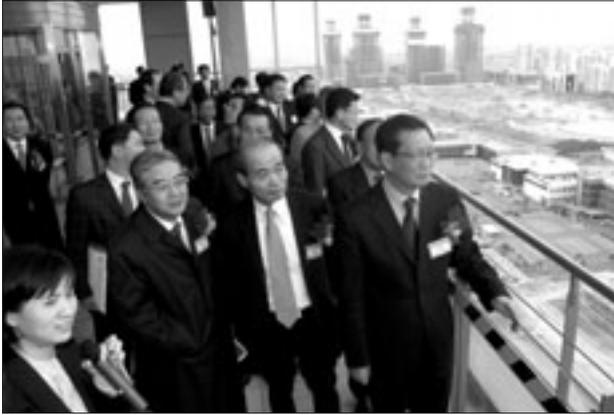
- 기간 : 4월 16일~4월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내용 : - 입주기업 · 기관 연구개발결과물, 과학관련 사진 전시
- 극지관련 연구결과물 및 채집물 전시 (세종기지 모형, 쇠빙선 모형, 물개 · 펭귄 등 박제, 고래뼈, 극지 암석류 등)

2. 인천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체험전

- 기간 : 4월 16일~4월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내용 : - 신재생에너지 체험 (자전거분수, 성력발전 체험, 태양열 에너지, 수차로 만드는 전기 등, 각종 에너지 관련 포스터 30종 전시)
- 과학 · 수학 원리체험 (눈으로 보는 소리, 눈 만들기, 전통과학 체험, 거꾸로 도는 팽이, 회오리 저금통 등)

3. 참가신청 및 문의 : 행사참여는 무료입니다.

- 접수 : 송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tep.or.kr)에 등록하거나 팩스로 접수
- 문의 : (재) 송도테크노파크 경영기획실 (260-0720, 0726)



아시안게임 유치위, 재외공관장 초청 설명회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는 지난달 1일 OCA회원국의 재외공관장 등 아시아지역 주재대사 11명을 포함한 22명의 재외공관장들을 인천으로 초청해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재외공관장들은 인천대교 홍보관과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각각 인천대교 건설현황 및 송도신도시건설 진행상황, 인천의 비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유치위 본부로 자리를 옮겨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의 당위성 및 유치노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문의 |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 440-4190

전국 공무원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지지

전국 16개 시·도공무원대표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회의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0일 개최됐다. 전국 공무원노조 대표들은 특히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지지결의안을 채택해 안상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결의안에서 인천은 국제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인천이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어 송도국제도시로 이동, 갯벌타워 홍보관과 인천대교 건설 현장 등을 견학했다.

문의 |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 440-5687



이제 반상회도 인터넷으로

지난 1967년부터 주민간의 대화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해온 반상회가 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공간에서 맞춤형 찾아가는 반상회 서비스로 제공된다.

우리는 10개 군·구에서 제작한 반회보를 시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인천시 모든 군·구의 반

회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배너광장에 '반상회보' 코너를 마련해 기존의 오프라인 반상회와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주시정의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등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통·리장들에게 휴대폰을 활용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37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우리는 디자인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총 7억원을 들여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인천시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쥐 오는 10월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디자인산업 육성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지난달 말에는 1억7천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중소기업들이 독창적인 디자인의 새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지원, 국제디자인 기술 교류지원, 디자인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 디자인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를 '인천디자인주간'으로 정하고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7인천국제디자인페어'와 '2007전국고등학생 디자인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 ☎ 440-2824

인천국제공항철도 환승 계양역 개통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환승하는 계양역이 3월 16일 개통됐다. 2002년 12월 첫 삽을 뜬 후 총사업비 614억원을 투입 4년 3개월간의 공사 끝에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굴현~계양역이 연장(1.3km)개통되어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은 총길이 동막~계양(24.6km), 정거장 23개소가 된다. 계양역사는 지상 1층에 넓은 대합실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장 추락 사고를 대비한 인천 최초의 반밀폐형 스크린도어, 승객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승강장에는 계양산성을 형상화한 도예벽화를 처리하여 한층 더 미관을 돋보이게 강조했다.

문의 |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451-2737



세계 걸스카우트 인천에 모인다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인 제10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가 2009년 8월 인천대공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한국 걸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공인된 국제야영대회로 50개국 1만명 이상의 걸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참가한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야영대회를 유치하

기 위해 기존 개발된 공원과 매립지 등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추진 결과 인천대공원의 유희지와 숲속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임시 야영장을 조성하여 건설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안을 상호 협의했다. 이번에 우리시가 대도심권 시민공원에서 야영대회를 개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 청소년 야영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은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해로 인천의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서 열려 세계 144개국 1천만명의 걸스카우트 대원들에게 Global City 인천을 홍보하게 될 것이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62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

인천대공원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35kw)가 가동되어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는 일정량의 일사량만 있으면 무한한 전기의 생산이 가능해 최근에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이다. 태양광발전설비는 3억원의 사업비로 35Kw의 태양광발전이 가능한데 40w형광등 875개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대공원의 관리사무소 전력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공원주차장에는 30kw용량의 햇빛 차양막 역할을 겸한 태양광발전모듈이 설치돼 있고, 관리사무소 옥상에는 5Kw용량의 추적식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돼 태양의 이동에 따라 태양광모듈이 햇빛을 추적 할 수 있어 발전효율을 극대화했다.

문의 | 시 동부공원사업소 ☎ 440-4909

깨끗한 도로 향토기업이 가꾼다

도로 클린관리제 협약식



우리시는 지난달 15일 인천의 주요향토기업인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두산인프라코어(주)와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토기업들은 3월 16일부터 동구 중봉로 등 주요도로 왕복21km를 매일 2회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 진공청소차를 이용해 도로물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기업의 자율적인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전국 최초의 민간도로관리를 위한 환경협약이다. 우리시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사업의 시행으로 저감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단지역도로, 쓰레기 수송도로 등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22

굿인천 굿뉴스

물사랑정원 문열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남동구 장수동 장수배수지 일대 4천700여평의 부지에 '물사랑 정원'을 마련해 지난달 9일 준공했다. '물사랑 정원'은 생태연못, 휴게광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우수대, 조합놀이대, 전망대, 조형물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생태공원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물 홍보관이 있는 남동정수장 앞에 길이 450m의 인공 실개천을 만들 예정이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실개천에는 남동정수장의 물을 이용해 연못 5곳과 습지, 수경시설 등을 조성하며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 868-8390



엘리베이터 등에 시정 홍보

우리시의 홍보실무협의회가 확대·개편된다. 오는 2009년 인천도시세계엑스포와 2014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국제 행사와 경제자유구역건설 등 시정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리시는 지난달 26일 10개 군·구청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홍보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명예시민기자 육성, 인터넷 신문 활성화, 각종 홍보물 콘텐츠와 디자인 관리 등 각 기관별 홍보 전략에 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적극 활용해 시정현안을 알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내버스 외벽광고, 경인전철 노선광고 등 이미지 광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공보관실 ☎ 440-2042



교육청 소식

저소득층자녀 학비감면 확대

인천시교육청은 소득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의 2007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저소득층 감면대상은 지난해의 가계소득수준 160만원 보다 5퍼센트 확대된 168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2007년도 1월 보험료 기준 40,000원 이하의 가정(인천지역 보험료 세대구성비의 16.5%)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고등학교 학생수와 2007년도 학생수를 비교할 때 약 18,300명에서 1천명 이상 증가한 19,300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실직 등 일시적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가정을 우선지원토록 하였으며, 위기가정의 자녀를 적극 지원해 비행 청소년 전략 등 사회부적응 현상을 방지한다.

'공동식단제' 급식실 위생관리 UP

인천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을 기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식단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식단제'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인근학교 1~3개교를 1개조로 편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식단을 작성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이를 위생관리 시간에 투입함에 따라 급식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번 '공동식단제'는 오는 7월까지 북부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와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 보완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뉴스 Zoom In

시내버스 운임 조정하고 서비스 개선

4월 1일부터 지선버스는 100원, 간선버스와 시내 좌석형버스는 교통카드 이용 기준으로 50원의 요금 이 인상됐다. 또한 시내버스간 요금차이로 인한 불편을 완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버스이용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승시 높은 운임을 기준으로 운임차액을 부담하는 '차액 운임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교통약자 및 버스 고급화를 위한 CNG 저상 버스를 도입한다.

둘째, 요금제도가 현재 중고생과 초등학교생의 신분으로 나누던 것을 청소년과 어린이의 연령으로 나누어 신분과 연령이 불일치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현재 일반과 청소년카드로 구분되는 교통카드에 어린이카드를 추가로 구분해 발급한다. 교통카드 구입후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 청소년 및 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하던 것에서 먼저 사용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

넷째,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유아 1인만 무임승차 하던 것에서 인원에 관계없이 무임승차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섯째, 교통카드 판매소를 확대해 교통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 이비카드사는 650개소에서 700개소로, 한국스마트는 102개소에서 380개소로 확대되고 무인충전방식으로 전환한다.

여섯째, 버스운전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해 시민들을 친절히 모시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82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립공사 기공식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151층 인천타워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기공식이 지난달 13일 송도동 국제업무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등 50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축사, 기공식 발파 등으로 열렸다. 6공구 2.62km²(79만평), 8공구 3.72km²(113만평)등 총 6.34km²(192만평)에 이르는 6·8공구는 2010년 5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송도 6·8공구 조성으로 첨단 국제비즈니스 도시의 새로운 모델 제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쿼터스시대 송도가 앞당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달 21일 송도 국제도시내 신축 사업부지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공유기반시설은 총사업비 3천717억원을 투입해 송도 11-13번지 81,275m²(24,586평) 부지에 연면적 약2만4천760m²(7,940평) 규모로 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분야 중소기업체들이 쓴 비용으로 고가의 시험·제조설비 등을 이용하도록 관련시설을 모아놓은 건물이다. 우리시와 정통부는 지난 2006년 6월 u-IT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고, 세계 우수 국내외 기업이 공동으로 R&D, 생산, 비즈니스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u-IT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u-IT 클러스터의 핵심 앵커시설이 될 공유기반시설은 RFID/USN 관련기업에게 산업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USN Fab센터로 구성된다.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4층, 3,480평 규모로 RFID/USN 관련 시험·신뢰성·인증실, 시제품 조립실, 응용기술실로 구성되고 USN Fab 센터는 지상 2층, 3,660평 규모로 MEMS센서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 및 전문 인력, 그리고 고객 사무실을 갖춘 예정이다.

송도에 암·당뇨 전문연구소 착공

가천의과대 길병원은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테크노파크에 지상 5층, 지하 2층 4천750평 규모의 암·당뇨 전문연구소를 착공했다.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540억 원을 투입하는 가천 암·당뇨 연구소는 아시아 최고 시설과 함께 세계적 석학들을 대거 영입해 암과 당뇨병, 비만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약품개발을 위한 '암·당뇨 정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가천의과대 길병원은 이번 연구소 건립을 통해 전체 인구의 4~5%가 앓고 있는 암과 당뇨병의 발병원인과 성인의 10%가 가지고 있는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과 비만의 상관관계 등의 규명을 통해 만성질환인 암과 당뇨의 정복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천의과대 길병원은 뇌과학연구소와 암·당뇨 연구소에 이어 나노바이오 연구소, U헬스케어센터, 재생의학연구소, 의상의학연구소, 의료기기개발연구소, 생명과학대학원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세계 유일의 첨단 의학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소식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기념 시승식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창규)는 2월 28일 의원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3월 23일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승식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의 환승역인 계양역 환승체계 확인, 추가로 건설될 역사인 용유역에 대한 주변현황 등을 점검해 시민불편사항이나 보완점에 대해 (주)공항철도에 건의했다.

공항철도를 시승한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철도를 타면 편리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것 같다”고 말하고 “공항철도를 타면 인천의 바닷가 풍경도 감상할 수 있는게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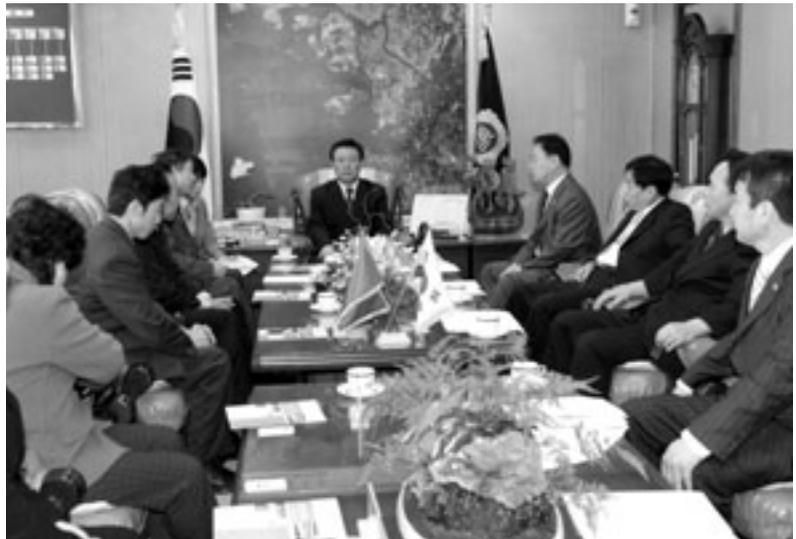
중국 중경시 인민대표회의 대표단 방문

인천광역시의회는 3월 19일 10시 의장실에서 중국 중경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8명, 단장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孫賢元(쑤 시엔 위엔))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중경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인천 방문은 지난해 11월에 중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공경(趙公卿) 부주임이 인천시 의회를 방문하여 우호 교류를 협의한 후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중경시와 인천시는 꾸준한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인천시의 회에서도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동의했다. 이날 양 대표단은 오는 6월에 중경시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창규 의장은 협약체결에 따라 향후 양도시간 더욱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것과 아울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중경시 인민대표대회와 인천시의회도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분야에서 더욱 견고한 우호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에서는 박창규 의장을 비롯하여 노경수 제1부위원장, 고진섭 제2부위원장, 이근학 의회운영위원장, 최병덕 기획행정위원장 등 의원 5명과 윤석운 의회사무처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시민제안제도 조례안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지난 제152회 제2차정례회에서 박승희 의원 외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돼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지난 3월 2일 제154차 임시회 때 통과시켰다.

제안의 종류는 제안자가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제안’과 인천시장이 제안의 범위와 절차를 시보 등에 게재해 공모하는 ‘지정제안’으로 구분되며 시정에 관해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 대상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을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제출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보상금 지급 등의 범위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하위 실무기관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무를 하도록 했다.

또한 제출된 제안이 채택될 경우 시장이 제안자에게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행사부장관 면담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박주용)는 지난달 20일 12시에 정부중앙청사에서 박명재 행사부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 협의회 주요정책사항 추진과 각 시·도 의회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근무공무원 의사수당 인상과 속기사인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자격요건완화 등 2건을 건의했다.

“인천시민의 안전, 우리가 지켜야죠”

이재호

인천광역시의회 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15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 송도 LNG저장탱크 메탄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위원장에 이재호 의원, 제1간사 배영민 의원, 제2간사 지정구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박승희, 김용재, 김용근, 정종섭, 강석봉, 이병화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해 5월 14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특위 구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재호 위원장은 “송도기지에서 국내 전체 LNG 수요량의 40%를 감당하고 있다. 대단한 규모의 시설임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일반인은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LNG 생산기지의 안전을 시민사회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위가 구성됐다”며 “우리의 안전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도 구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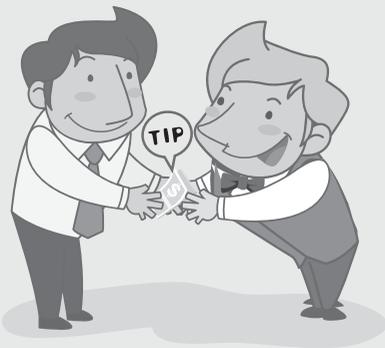
특위의 활동범위와 목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한마디로 시민의 안전이 목표다. 우리는 송도 LNG 기지 내 저장탱크가스누출사고의 경위 및 원인 규명과 저장탱크 가스 관리 실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번 송도 LNG 생산기지 가스누출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대 위험시설물이면서도 실질적 위험성에 대한 학술적 검증이 없었다는 점, 숨겨오던 가스누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순차적인 보수를 주장했던 가스공사가 일괄 보수를 입장을 바꾸는 등 공기기업의 도덕성 문제, 당초 생산기지가 육지와 12km 떨어져 설치될 계획이었으나 8km로 축소 조정된 점, 송도 국제도시라는 최첨단 경제특구 옆에 최고의 위험 시설물이 배치되고, 추가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우리시가 추진하는 외자유치에 이번 일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시나 지역사회가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한다는 이 위원장은 “범시민적 관심과 격려가 중요하다. 시민전체가 특위 위원이란 생각으로 활동할 것이고 가스공사도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역 언론에서도 홍보와 여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슈를 제기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4

잔돌이와 졸부의 갈림길 팁

글 · 박영일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장



팁이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조그만 감사의 표시이다. 영어로 팁(Tip)의 어원은 'To Insure Promptness'이다. 이 말은 '신속함을 보장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팁을 주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호텔이나 몇몇 레스토랑의 경우 요금의 10%를 계산서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사실 팁만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팁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봉사료 지불 매너를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팁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성이다. 팁을 주기에 적절한 장소이며 적절한 금액인가 등을 고려한다. 팁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팁에 대해서 너무 인

색하면 자칫 '잔돌이'의 이미지나 혹은 무례한 행동으로 비취질 수 있고 그렇다고 듬뿍 팁을 주는 것도 허세를 부리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런 경우는 돈 주고도 욕 먹는 셈이 되니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 2달러 또는 계산서 총액의 10~15% 정도면 알맞다.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1,000~2,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지불할 때는 지나치게 드러내고 주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다. 봉사료를 지불할 때는 돈이 보이지 않게 손바닥 아래로 해서 건네는데, 예를 들어 도어맨에게는 자동차 열쇠를 주고받으면서, 웨이터에게는 식사 후 악수를 청하면서 팁을 건넨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을 때는 남성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고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팁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다. 만일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산서 밑에 식사비용의 몇 %를 웨이터에게 준다는 메모를 적으면 된다. 셀프서비스인 경우에는 팁을 줄 필요가 없다. ♪

상황에 맞는 팁 지불 매너

호텔 이용시 벨맨이 가방을 들어줄 때는 가방 한 개당 1달러, 룸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음식값의 15%, 룸메이드에게는 외출 할 때 베개 위에 1박당 1달러를 놓고 나가고 한 방에 둘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주면 된다. 레스토랑 이용시에는 웨이터에게 식사비의 10~25%, 소믈리에에게는 와인값의 15% 정도 건넨다.

그 외 택시 기사에게는 요금의 10%, 공연장에서 좌석 안내자에게 50센트에서 1달러 정도, 미용사에게는 요금의 15%를 팁으로 주면 된다.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전쟁과는 달리 경제전쟁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술 및 산업 첩보전은 이제 국가는 물론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는 첨단 기술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술 무임승차를 위한 산업스파이전은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3년 10월에 '산업기밀보호센터'를 개설, 우리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안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2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하여 기업·국가경쟁력의 초석을 굳건히 하고 있다.

‘산업보안’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초석

국내발생 산업스파이 사건

2003년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을 기도한 총 92건을 적발하여 약 92조 2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출분야는 반도체·휴대폰 등 정보기술(IT)분야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밀기계·생명공학·자동차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보안 도우미’ 국정원 인천지부

이런 상황속에서 국가정보원 인천지부는 체계적인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06년에는 세계적 뇌질환 연구소인 가천의과대 ‘뇌과학연구소’를 비롯한 1,300여개 관내 중소기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산업기술보호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들어서도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 관련 상담지원을 하는 등 산업보안 도우미로 나섰다.

또한 산업보안·스파이 적발활동에 매진하여 2005부터 현재까지 M사 컴퓨터 핵심부품 설계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는 등 4건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하여 1조원대의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등 기업지원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유출 신고 접수와 최신 산업보안 정보 서비스를 위한 신고·상담전화(☎ 111, 032-437-16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nisc.go.kr)를 통해서도 국내외 산업보안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산업기밀보호 상담, 질문과 답변 등의 코너를 통해 기술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앞으로도 첨단업체 등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보안체제를 확립시키는 중심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소액 임차인이라도 방심은 금물!



Q 인천에 살고 있는 '나임차'라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은행에서 빌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저 같은 소액임차인들은 보증금이 보장이 되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A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본래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으로서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 주택의 임차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매매는 임차권을 깬다'는 법리를 주택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민의 주거생활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택의 점유를 계속해야 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나중에 매매, 경매 등에 의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로서 매각결정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나임차'씨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계속해서 점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나임차'씨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다면, 다른 근저당권자 등 다른 권리자들과의 배당순위는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은행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보증금인

2,000만원 전액을 은행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서는 법이 정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까지는 다른 권리자들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임차'씨가 살고 있는 인천지역은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1,6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나임차'씨는 은행에 우선하여 1,600만원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법원에서 알아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임차인도 반드시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노리고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배당까지 받아가는 사례가 늘어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배제신청을 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로 주택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각종 공과금영수증, 신문, 우유배달 영수증 등의 자료와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나임차'씨와 같이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당연히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초등학생에게 참 유익한 곳 같습니다.

임순영 | 연수구 옥련동

삼산동은 촬영 중

우연히 삼산동을 지나가는데 폭죽 죽 같은 오토바이가 뒤집어 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 사고 난줄 알았죠. 잠시 후 '컷-'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영화 촬영 중 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촬영한 그 영화 대박나시길...

유미옥 | 남구 구월동

김치~찰칵



우리 남편은 멋쟁이

남편의 군대시절 사진입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나 잘생긴 우리 남편과 군대 동기들. 이 사진은 고이 간직한다고 앨범에 소옥 감춰두었더라구요. 제 남편은 왼쪽 세번째랍니다. 우리 남편 멋있죠?

오영림 | 남구 학익동



썰매장에서의 만찬

지난 겨울, 동네에서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썰매장에 갔어요. 작은 아이는 처음이라 신기해하며 신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썰매장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 비상 식품(?)으로 요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이후로 비닐하우스만 보면 썰매장이랍니다.

임동훈 | 계양구 병방동



홍예문에 우회전은 없다

오후에 홍예문 앞을 지나다 홍예문 사이로 걸어오는 노부부와 홍예문 앞의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보고 인생의 길엔 우회전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담아 봅니다.

장은주 | 동구 송림동

축
장
원

신입생 환영식~

신광초등학교 신입생 환영식의 모습입니다. 아들 녀석이 3학년이 된 선배로서 신입생 후배들에게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김민정 | 연수구 옥련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서해 바다의 '수호천사'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난함 3005함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난함
3005함

바다에도 길이 있고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며,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욱 통제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해양경찰의 임무는 막중하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동·서해 특정해역과 독도 주변,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 주변 해역에 이르기까지 남한 면적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지켜내야 한다.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노들담지역단 15명 대원들은 인천해양경찰의 역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자 최신훈 경비구난함 3005함에 올랐다.

글·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넉넉한 가슴, 날카로운 눈빛의 바다 사나이

웬만해선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3005함에 오르자 초중생 스카우트 대원들의 가슴이 콩닥거린다. 해경이 보유한 함정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대원들을 맞은 이는 다름 아닌 3005함의 구관호 함장이다. 해상왕 장보고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서 그럴까? 흰철한 키에 날카로운 눈빛, 다부진 입매가 천상 바닷바람에 단련된 바다사나이의 품모다.

“대원들이 타고 있는 3005함은 2004년 1월 21일 준공돼 그 해 2월 12일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에 배치되었습니다.”



3005함은 배수톤수 3960톤에 길이 110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9미터로 배 바닥에서 최상층인 조타실까지 7층 구조로 되어있다.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과 비슷한 규모다. 최대속력은 시속 약 40km이고, 지속 항해거리는 15,600km에 이른다. 서울에서 부산을 20차례 가까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배수톤수란 배의 무게를 흘려넘친 물의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구관호 함장은 초등학생 대원들을 의식한 듯 자상한 설명을 곁들인다.

3005함에는 경찰관 37명, 전투경찰 16명 등 총 53명이 승선해 근무한다. 이중 여성 경찰관이 6명이나 된다니... 옛날에는 여자들이 배에 타는 것을 금기시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런 일이 됐다. 오히려 여성경찰들이 섬세하고 행정력 또한 뛰어나다며 인정 받고 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방문객들을 인솔해 해양경찰 탐방을 도와줄 대원도 여성경찰인 김가연 경위이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장면 ‘충격’

함정소개를 마치고 해양경찰의 홍보 비디오를 관람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할은 북한과 마주한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과 북위 37도선 이북, 그리고 서쪽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선을 연결한 내측 해역이다. 담당하는 면적은 14,272km²로 인천 육지 면적의 약 14배에 달한다.

곧이어 관람한 것은 방송사 기자가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동행해서 촬영한 실제상황 영상물. 우리나라 바다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마구 흔들리는 카메라가 당시의 긴박감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발견한

해경은 고속단정에 옮겨 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했다. 3005함이 직접 쫓으면 중국어선이 바로 알아채게 되고 큰 덩치가 움직이려면 연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명 ‘꼬마’라고 불리는 소형 보트인 고속단정을 이용한다. 몸집은 작아도 시속 90km를 자랑하는 날쌔돌이다.

보트에 탄 경찰관들이 중국 어선에 올라가려고 하자 중국 선원들은 기다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해경이 최루탄을 발사하지만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경찰관 한명이 중국어선에 올라가려다 몽둥이에 맞는다. “아~!” 영상물을 보다가 놀란 대원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동시에 신음한다. 그 경찰관은 골절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우리 해양경찰이 진압에 성공해 중국어선을 나포했지만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해양경찰이 어둠과 파도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짐짓 숙연해진다.

배에는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함정을 둘러볼 차례다.

“배안은 모두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뛰면 위험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함창석 항해장이다. 쇠가 물에 뜬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친구들이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조타실. 배에서 쓰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과 많이 다



른데 조타실은 조종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대원들은 항해장의 허락을 받고 각각 레이더, 핸들, 나침반 앞에 앉아본다.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놓칠 새라 내친김에 뱃고동까지 올려보는 친구들. ‘뿌앙~’ 길고도 멋진 뱃고동이 길게 울려 퍼진다.

“배에는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항해장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는 대원들. 배에도 브레이크가 있단다. 배에서 바닷물 속 바닥까지 닻을 내려 보내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다음 코스는 기관제어실. 컴퓨터와 계기판들로 가득 찬 실내가 영화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이다. 뒤엔 동기제어판이 있어 전기가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갑판에는 분당 20톤의 물을 최대 200m 거리까지 쏠 수 있는 소화포와 분당 3300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발칸포가 버티고 있다. 발칸포는 발사속도뿐 아니라 2500m 거리의 20mm철관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니 무시무시한 무기이다.

갑판 위서 헬기 이륙... “우와~ 멋져요”

3005함은 상층 갑판에 헬기를 신고 다닌다. 공중과 해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경비활동을 위해서란다. 또한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헬기의 첨단장비와 기동성이 큰 몫을 발휘한다.

대원들에게 헬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헬기의 프로펠라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굉음을 뿜어내는데 귀가 멍멍해질 정도다.

드디어 헬기가 짙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자 헬기하우스에 들어가 구경을 하던 대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다.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헬기 이륙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조종사 차주호 경위와 탑승 정비사 김기성 경장을 향해 친구들은 손을 흔들어 감사 인사를 건넨다.

이제 해상경비나 중국어선을 검거할 때 사용하는 고속단정에 직접 타볼 차례. 구관호 함장이 직접 친구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도와준다. 구명조끼를 입고 고속단정에 오르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비록 오늘 하루뿐이지만 바다의 파수꾼 해양경찰이 된 듯 하다.

그러나 대원들의 '진지' 모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환호' 모드로 바뀌었다. 고속단정을 타고 바다 위를 질주하자 친구들의 비명 같은 탄성이 물보라를 일으킨다. 마치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나 제트스키를 탄 것 같은 짜릿함을 느끼는 모양이다.

소 박 하 지 만 행 복 한 저 녁 만 찬

“오늘 우리 함정에서 해양경찰이 먹는 저녁식사를 함께 들고 가세요~”

대형함정에... 고속보트에... 헬기에... 낫설고 짜릿한 체

험에 허기진 친구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특별제안이다.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 해양경찰이 사용하는 식판을 들고 직접 먹을 만큼 양을 덜어 자리에 앉은 스카우트 대원들. 밥도 돈가스도 스프도 모두 꿀맛이다.

맛나게 밥을 먹으며 친구들이 묻는다.

“함장님, 해양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관호 함장과 스카우트 대원들의 화기에애한 대화가 식사시간 내내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몰랐던 세계를 하나 더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꿀 수 있는 꿈도 하나 더 늘어났다. 🍌

>>> 함정에 사는 사람들

함 장 : 함정 근무요원을 지휘, 통솔하는 대장

항해장 : 함정의 명을 받아 배가 가야할 항로, 수로, 기상에 관한 일을 보는 사람

장포장 : 함정에 장착된 무기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

구난장 : 구난장비, 보트 등을 관리하고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

기관장 : 엔진, 발전기 등 기계부분을 총괄하는 사람

갑판장 : 갑판작업, 입출항 때의 작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

주계장 : 부식담당

승조원 : 함정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해양경찰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바다에서 위협적인 것은 파도만이 아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가 조용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에 가능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외국어선 486척을 검거했습니다.”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각오로 한 해 100척이 넘는 외국 어선을 검거하자 최근에는 불법 조업 어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우리 바다 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지키면서, 해양범죄 예방과 단속, 구난활동, 해양오염 감시 등 수많은 임무를 가진

○ 현장 인터뷰 구관호 함장

해양경찰은 바다의 119이자 세관이고 검역 등을 총괄하는 종합기관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거나 해결됐을 때 육지 같으면 언론의 접근이 쉬워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지만 해상에서의 활동은 보도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노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3005함 같은 경비구난함이 바다에 위풍당당하게 떠 있음으로써 지역이 평정되고 우리나라 주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한번 바다로 나가면 8~9일씩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바다길 교통을 어지럽히는 배들과 싸워야 하고 때때론 거대한 파도라도 맞서야 하지만 구관호 함장의 눈은 수많은 고충을 평정시킬 자긍심으로 빛이 났다.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극단 <마디> 제4회 정기공연 **당신, 어디 계세요?**



일상과 사회 속에서 걸돌며 함몰돼 가는 현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희귀한 병에 걸린 평범한 직장인의 현실을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한번쯤 뒤돌아보게 한다. 진지한 주제로 인해 작품의 무게와 템포가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다양한 코믹요소와 연극적 장치를 마련했다.

일시 _ 3월 30일(금) ~ 4월 8일(일)까지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7시
장소 _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아트홀 소풍

티켓 _ 일반 15,000원 학생 8,000원

문의 _ 극단 마디(814-4572)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442-8017)

COZ 봄봄 재즈 콘서트



코즈는 2000년 결성된 크로스오버와 퓨전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는 크로스오버밴드이다. 스윙, 라틴, 팝, 펑키, 세미클래식, 뮤지컬, 뉴에이지, 3세계 음악, 그리고 국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이지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한다. 멤버끼리 서로 일치된 호흡을 바탕으로 풀

어내는 연주는 국내 밴드계에 새로운 장르의 물결을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시 _ 4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760-3455~6, www.iecs.go.kr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75회 정기연주회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휘자라고 평할 만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출신의 첸 주오 황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영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서곡 「마술피리」

K.620, 드보르작 교향곡 제7번 라단조 작품.70 등을 연주한다.

일시 _ 4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_ 438-7772



Woman in Photography전

'Woman in Photography' 전에서는 신디 셔먼, 다니엘 뷔에티, 윌리엄 뷔에티, 윌리엄 클라인, 어빙 펜, 프랭크 호바트 등 현대사진의 대표적 작가 4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패션' (Fashion), '매혹' (Glamour), '일상' (Everyday Life)이란 다양한 범주로 바라본 여성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의 여성신체에 대한 다양한 미학적 견해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시 _ 4월 5일(목)~11일(수) **장소** _ 인천신세계갤러리

일	화	수	목	금	토	일
				4월 6	7	8
				꿈 사랑 중창단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이든홀 오후 7시 무료 ☎ 551-9708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7만원, 5만원, 3만원 ☎ 471-8600 추억의 7080콘서트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7만원, 5만원, 3만원 ☎ 471-8600
9	10	11	12	13	14	15
	봄맞이가곡과 아리아의밤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 / 2만원, 1만원 인천음악문화원 ☎ 429-0248		신인음악상수상자 초청음악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 / 2만원, 1만2천원, 8천원 / 인천챔버오케스트라 ☎ 438-6040	연수 금요예술무대 팔죽할멈과 호랑이 연수구청 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무료 ☎ 810-7085	주현미콘서트 "어허라 내사랑"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한국예술경영협회 ☎ 811-0550 뮤지컬 댄스공연 엠파이어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한상민의 마술쇼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퓨전국악 콘서트 스프링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기차길열 작은학교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2시, 6시 무료 ☎ 766-1969
16	17	18	19	20	21	
	미출홀 여성합창단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 초대 태평공연기획 ☎ 882-4199	러시아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 / 2만원 태평공연기획 ☎ 882-4199	로망스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1만원, 7천원 예술기획 예담 ☎ 017-656-3840		우니타스교향악단정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1만원, 5천원 미추홀아트센터 / ☎ 518-1511 코즈 봄봄재즈콘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오후 3시 / 6천원 ☎ 760-3455	
23	24	25	26	27	28	29
	인천창로성가단 창립30주년기념정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763-5372		학산문화원 하품학교 프리머스 주안점 오후 7시 ☎ 866-3993	시립교향악단 제275회 정기연주회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 / 1만원, 7천원, 5천원 / ☎ 420-2731 금요예술무대 '우리소리 우리 몸짓'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쇼 발레 엘마스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무료 / ☎ 760-7860 시립극단 봄날 (27일~5월 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5천원, 1만원 / ☎ 420-2790	제7회 인천국악대제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0시 인천국악협회 ☎ 875-4644
30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JESUS CHRIST SUPERSTAR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4월 7일(토) 8일(일)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7만원, S석:5만원, A석:3만원



—————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그리스도 최후의 7일간을 2막으로 구성한 락 오페라이다. 락 음악을 통합한 최초의 뮤지컬로서 작사자 팀 라이스와 작곡자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명콤비의 화려한 탄생을 알린 작품이다.

탁월한 극적 구성력과 높은 음악적 완성도로 전 세계적인 뮤지컬 선봉을 일으킨 이 작품은 1971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프랑스, 호주, 헝가리, 체코, 일본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공연하며 35년간 꾸준히 사랑 받아온 세계적인 히트뮤지컬이다.

1980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20여 년 동안, 평균 4년에 한 번씩 공연돼 오면서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게 관람을 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Superstar 등 널리 알려진 히트 곡들은 지금까지도 변함 없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인천 공연은 브로드웨이 최신 버전으로 제작된다. 브로드웨이 최신 버전은 현대적인 세련미가 돋보이는 공연으로 의상, 안무, 조명 및 모든 비주얼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프로덕션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경 자체가 현재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수와 제자들은 경제, 정치적으로 좌절된 젊은 집단으로 묘사돼 있다.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예수를 향해 카메라 맨과 조명기사, 방송 기자들이 소란스럽게 경쟁보도를 하는 풍경이나 유다가 반라의 무희들과 함께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장면에서는 마치 화려한 라스베이거스의 빅쇼를 연상케 하는 등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공연문의_오렌지웨이브커뮤니케이션즈 ☎ 471-8600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



‘봄날’(이강백 작, 이종훈 연출)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 가는 과정인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밀도 있게 형상화하여 인간의 순수한 심성인 사랑을 봄날처럼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다.

부성(父性)과 모성(母性), 아버지와 자식, 노년과 젊음, 소유와 박탈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봄날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따뜻하게 조명하며, 설화적 요소를 가미한 상징과 은유가 돋보이는 연극이다.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대립구조 안에서 소유욕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뿐만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제시한다. 아버지의 욕심에 반기를 든 자식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도망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를, 자식들을 서로 그리워하며 가슴 깊이 사랑을 갈구한다.

작품 속 등장인물과 계절의 흐름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세대간의 갈등과 대립, 용서와 화해를 수채화같이 그려낸다. 특히 계절의 변화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처리하여 순간순간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시립극단은 ‘봄날’ 공연기간 동안 부모님과 동행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연극의 한 장면인 ‘부모님 업어드리기’ 행사를 열어 참가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대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시립극단은 이번 공연에서 ‘관람료 후불제’라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후불제 관람료는 기본료를 1만원으로 하되, 관객이 공연의 감동과 만족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다. 물론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일시 : 4월 27일(금)~5월 6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4시, 7시 30분 / 일요일 오후 4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 문의 : ☎438-7775

2007 인천연극제

올해 인천의 최고 연극작품을 가리는 ‘2007 인천연극제’가 막을 연다.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수봉공원 인천문화회관 소극장과 계양문화회관, 씨아리소극장, 작은극장단체에서 6개 극단이 경연을 벌인다. 이번 연극제에는 특별함이 있다. 창작극이면서 초연 작품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최우수 작품은 오는 5월 16일 경남 거제에서 개막하는 ‘2007 전국연극제’에 인천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지난해엔 극단 십년후가 ‘사슴아 사슴아’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거머쥐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연극제는 지역 예선인 셈이다. (문의: 019-490-5023)



| 작품별 공연일정 |

- 사랑 죽음 아이러니(극단 산만) 4월 6일~8일 인천문화회관소극장
- 송현동 109번지(극단 엘칸토) 4월 13일~15일 계양문화회관
- 두사람(극단 마음) 4월 18일~22일 작은극장 단체
- 골생원(극단 집현) 4월 24일~27일 인천문화회관소극장
- 울 밖에 핀 봉선화(극단 피어나) 4월 11일~15일 인천문화회관소극장
- 러브안마사 만들기(극단 놀이와 축제) 4월 19일~22일 씨.아리 소극장
- 달아달아(극단 한 무대) 4월 20일~22일 인천문화회관소극장

신화가 된 이소룡, 그는 죽지 않았다

‘영원한 미래의 육체’ 리샤오룽(李小龍)이 은막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북성동 중국촌에 있는 한중문화관에서는 영화로 ‘이소룡의 추억’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4시에 4층 공연장에서 이소룡 영화를 상영한다. 출세작 ‘당산대형’(1971)을 시작으로 ‘정무문’(1972), ‘맹룡과강’(1972), ‘사망유희’(1979)를 볼 수 있다.

남자라면 학창 시절 누구나 한번쯤 이소룡 흉내를 내봤을 것이다. 그가 의문사한지 3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이미지는 확대 재생산되며 세대를 초월한 무술 영웅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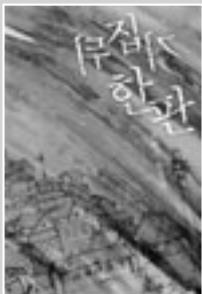
4월 내내 북성동에서는 이소룡 식 과성과 쌍절곤 휘두르기를 흉내 내는 어린이들과 7080 아저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하다. (문의 760-7860)



- ① 정 무 문
- ② 맹룡과강
- ③ 사망유희
- ④ 당산대형

BOOK

조혁신 소설집 뒤집기 한판



소설집 <뒤집기 한판>은 인천의 송림동 산동네를 주된 배경으로 하여, 산동네 서민들의 진솔한 삶과 희로애락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집이다. 이 소설집에는 모두 여섯 편의 단편소설이 실렸는데 작품들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부처산 8번지’라는 산동네를 동일한 배경으로 한다. 가난한 동네에서 아옹다옹 살아가는 등장인물이 그물처럼 서로 얽힌 관계를 맺고 있는 일종의 연작소설 형태를 띠고 있는 작품집이다. 작가 조혁신은 1968년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하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인천지역 노동단체에 몸을 담았으며, 공사장 인부, 목수 등의 일을 하며 소설쓰기를 했다. 2000년 계간 ‘작가들’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인천일보 문화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도서출판 작가들 / 9,800원

‘어느 절세의 풍경화가가 여기를 다녀갔던가’

— 한상익의 마이산

글 · 김학균 시인



1987년의 9월, 가을을 알리는 옷깃바람이 사뭇 차갑게 느껴지는 신포동의 저녁은 그래도 활기찬 모습으로 기억된다. 중국 요리집 진흥각,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한상익 선생의 송별회장이다. 인천의 문인들이 만장하리라던 기대는 사라지고 30여명, 좀 쓸쓸

하다할 분위기에 속에서 진행된 석별의 장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다.

문인(문단)들 중 제일 막내였던 필자는 초입에서 안내를 하며 참석한 사람들의 방명을 받고 있는 임무(?)를 수행했다. 제책으로 된 방명록이 아니고 화판(일본명으로 스키시판으로 동양화 재료)에 필적을 남겨 떠나실 때 드리기로 했던 것이다. 허나 송별회가 끝났으나 무슨 연유로 그때 드리지 못하고 훗날 미국으로 우편 송부했던 기억이 후회스럽다.

왜 이민을 가셔야 했는지 뚜렷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외아들(충희)이 금성사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그냥 눌러앉아 모셔간 것이 첫 손가락을 꼽는 이유라면 이유인 것 같았다. 그렇게 떠나신지 만 5년, 고국방문 길 1개월 뒤 심장병으로 LA에서 77세의 일기로 영면, 인천

인으로서 애정의 보따리를 다 풀어 놓지도 못한 채 가신 것이다. 시인 한상익의 발자취 속으로 찬찬이 걸어가 보자.

해방은 이 땅에 새로운 것을 많이 흡입하며 영원한 자유와 한동안 잃어버렸던 모국어(를 되찾아 주었다. 복간된 신문과 창간되는 잡지 등이 헤어져 있던 문인들을 불러 모으며 신문학의 싹을 틔웠다 할 것이다. 36년 동안 갖지 못했던 문인들의 모임도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렇다 할 활동 없이 휴면기에 있던 인천도 해방직후 「신예술가협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뒤를 이어 「인천예술인회」도 창설되었지만 유아무야로 이어지며 1950년 6월 11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 인천지부가 미국공보원 인천분원에서 결성돼 문학분과위원장에 한상익을 추대했다. 이인석, 김차영, 조수일 씨 등이 참석했으며 동란이 발발해 ‘문총구국대’로 명칭을 바꾸고 많은 문인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인천의 문인모임이 태동하게 된다.

문총구국대 이후 「문학가협회 인천지부」, 「군사계몽작가단」, 「인천시인협회」, 「자유문학가협회」 등 분립의 상태는 계속됐지만 때마다 시인 한상익은 후배(연령적으로)들을 이끌며 선봉에 섰던 혼란기의 인천문화 창달의 선구자였으며 인천문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강화군 양도면을 고향으로 둔 시인 한상익은 (1915. 9. 1

생, 호는 二錄) 강화 온수초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유학해 1935년 인천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금융조합의 서기와 일인 경영의 「식량영단회사」 강원지사의 사원을 지내기도 했다. 1947년 「시와 산문」 동인을 시작으로 문인의 길을 걸었지만 정작 문단에 적을 올린 것은 8년 뒤 「자유문학」에 '네거리에서' '평행선'의 2편의 시를 추천 받음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대립' (58년 자유문학) '아침' (71년 월간문학) 등을 발표하면서 중앙문단에 첫발을 일구어 나갔다.



1961년 첫시집 「평행선의 대결」(범조사 발행)을 상재, 인천시립도서관(울목동) 정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연이어 「인천찬가」를 펴냈으며 15년간의 긴 잠복기 끝에 회갑기념으로 제2시집 「창변사유」(76년 현대문학사)를 출간, 문인으로서의 맥을 찾기에 이르렀다. 인생년륜의 경험적인 토대로

옹어진 시들로 생에 있어서 사(思)와 행(行)의 이율배반적 논고의 평행선 구도를 논하고 있는 첫 시집에 비하여 체념과 사유의 깊은 인생철학의 내면을 묘사한 「창변사유」는 구원의 길을 찾는 시인의 고뇌가 물씬 풍기는 시로 평가된다. 이는 아마도 깊은 신앙심(즈음 성산교회 수석장로 였음)의 발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동향 출신의 작곡가 최영섭과 교우하며 우리 강과 산을 주제로 한 가곡의 작시를 의뢰받고 「그리운 금강산」을 작사하여 62년부터 주옥같이 사랑을 받는 국민가곡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인천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민족의 영산에 가보고 싶은 국민들의 목마른 정서가 시 속에 승화되어 애창하게 된 것이다. 통일의 염원을 그는 시로 화답한 것이다.

「주간인천」 주필, 「인천신보」 논설위원, 한국시인협회 회장, 문인협회 경기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68년 동안 인천을 위하여 살았다해도 과함이 없는 향토시인, 그는 정말 인천

인이다.

인천의 곳곳에 시인의 얼이 따뜻하게 남아 있구나. 산에도.

摩尼山(마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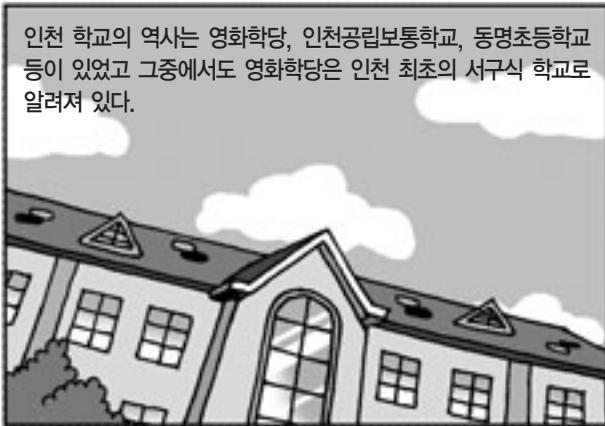
맑게 갠 개천절의 오후
피크니크를 나온 서울 사람들의
츄잉검 종이산길에 산란해도
오천년이라던가寢寔(침맥)의 터전
여기는 도회의 공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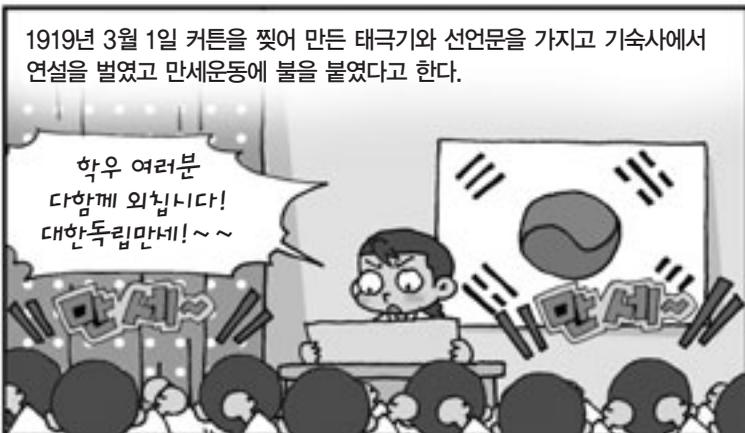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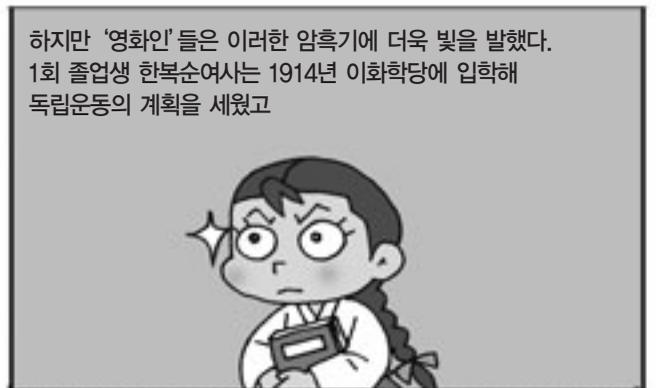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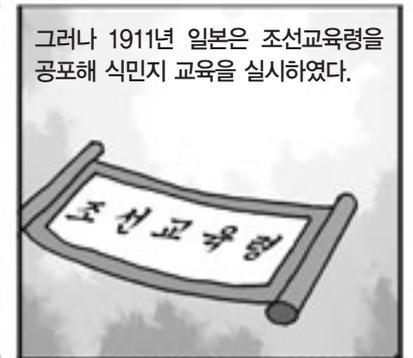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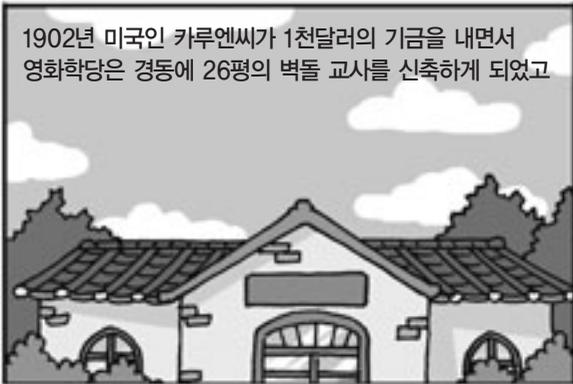
都會(도회)와 바다는
내가 지나온 인생의 시장.
한 덩어리의 부동체 속에서
한 방울의 인간성은 溶解(용해)될 뿐,
망망한 평야와 바다와
기복하는 산과 隱現(은현)하는 섬에
교회의 尖塔(첨탑)도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도 발견되지 않고
빠져린 寢寔(침맥)만이 흘러도
구름이 발아래 머흐는
참성단의 내 마음은 번거롭구나.

어느 절세의 풍경화가가
여기를 다녀 갔던가.
어느 稀代(희대)의 논리가가
저 푸른 하늘에 한숨을 보냈던가.
檀民(단민)의 핏방울이 돌웃으로 화한
壇石(단석)을 만지며
나는 시야를 넘는
저 都會(도회)를 다시 생각해 본다. ♪

인천 최초의 서구식 학교 영화학당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인천 유일의 미녀 전기 안전 점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조 . 혜 . 경

글 · 김 류 시인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이렇게 예쁜 여성이 점검을 하면 전선 속을 달리고 있는 전기도 찌릿찌릿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유일한 여성 전기 안전 점검원 조혜경(曹惠卿) 씨. 남자들처럼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스물 몇 살의 쌍꺼풀이 선명한 얼굴이 오히려 더 고와 보이는 것일까.

마주 앉았을 때, 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득, 강화 선원사지 근처 한 고목나무 옆에, 고려산 자락에, 노랗게 망울을 터트린 복수초(福壽草) 꽃잎이 눈에 보였다. 아니, 문득

이 아니다. 사무실 문을 들어서면서, 여러 명 남자 직원 틈에 혼자 있는 여자를 보았을 때, 이미 복수초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런 연상 작용이 머릿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는 잇따라 몇 년 전, 그 꽃에 대해 쓴 시를 떠올려도 보았을 것이다. 몇 대목 조혜경 씨가 한 말이, 돌아와서 영 생각이 나지 않는 까닭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옮기기에 좀 뭇한 줄자인 데다가, 내용도 저토록 상냥하고 성실한 조혜경 씨와는 그다지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시나부랭이를 떠올린 것이다.

들려 줄 수 있는데요. 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까지 했던 것이다. 그 시나부랭이의 영똥한 후반부를 생략하면 다소는 그녀의 이미지와 들어맞을지 모른다. 그래서 못 알아들은 여자를 위해서(?) 끝내 그 구절을 여기에 옮겨 놓는 것이다.

강화, 고려산 발치께, 죽은 듯한 고목나무 아래 봄의 마음이 진정 이렇게 노랗다. 네가 보고 싶으면 여기에 와서 반



썩 눈을 감아 본다. 가지 끝에 노란 꽃 한 송이, 별 한 송이. 향홀해서 언제나 다시 실눈 뜨는 봄이다.

- 졸시 (복수초) 부분

“정확히 작년 10월 16일에 입사했어요. 꼭 5개월 됐네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전기가 좋았어요.”

전기가 좋았다는 뜻이 무엇일까. 물리학적으로 전기란 ‘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는 공간에 있는 자유 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 음전기와 양전기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전기는 밀어내고 다른 종류의 전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식의 정의(定義)를 가진 전기를 조혜경 씨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다니?

그 말뜻을 이해하려면 고향 경상북도 상주에 살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아직 오늘날 처럼 전기 설비가 발전하지 못했었던지 거기 살 때는 특히면 불이 나가 암흑 세상이 되거나 냉장고를 멈추게 하기 일쑤였다. 얼마 있어 전기회사 아저씨들이 달려와서 전신주에도 올라가고 해서 복구를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온 ‘전기’가 아주 멋있고 좋아보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복수초 아가씨가 이 일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대학 때 문이었다. 상주여자고등학교를 나와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

기술교육대학 정보통신학과에 입학한 것이 계기. 정보통신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전기를 만난 것이다. 3학년 때 복수 전공으로 전기를 택했고, 그것이 결국 오늘 이렇게 ‘메가 미터’를 듣게 만든 것.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을 계도하는 한편, 사전 점검을 통해 전기의 재해나 위험성을 찾아내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지요. 편리하지만 또 무서운 것이 전기거든요.”

전류가 흐르듯 막힘없이 잘 이야기한다. 보람 있다는 뜻이겠지. 어려서 느꼈던, 그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냉장고를 잘 돌아가게 하는 ‘멋있는 전기’는 아니지만, 이 전기 점검 일로서도 자기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운 느낌이다. 여자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이쪽의 생각을 실로 부질없게 만들어 버리는 멋과 매력이 있다.

“점검은 혼자 다녀요. 점심도 다니다가 길에서 먹고요.”

봄이 저 만치 와 있다고는 해도 날씨는 오늘 따라 스산하기만 한데, 이런 날에도 이 처녀는 집집마다 다니며 누전 점검을 해야 한다. 한 달이면 9백 가구에서 천 가구를 방문한다. 아직은 초보라 8백 군데쯤 다니지만, 얼굴이 바람에 타고, 트고 할 티인데... 다리는 안 아픈지. 한겨울에는 또 어떨까. 차도 없다면서.

물론 남자 동료들이 그녀가 맡은 구역 근처까지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구역 중간에서 만나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돌아올 때 역시 중간에서 만나 데리고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쪽은 그런 것들이 여간 안쓰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야기 내내 무엇이 그리 기쁘고 좋은지 연신 입가에 봄 웃음을 문다. 어쨌든 세상이 바뀌기는 한 것이다. 여성들이 정말 씩씩하고 당당해졌다.

“어찌다 문을 안 여는 집이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또 낮인데도 술이 취한 채 남자 주인 혼자 있는 경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다음날 다시 와야죠.”

‘두꺼비집’만 아주 잠깐 점검하면 곧장 전기가 누설되는지 안 되는 확인이 되는데도 잡상인이나 무슨 종교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오인해서 문 열기를 극구 거부하는 집, 전기안 전공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문전 홀대하는 시민들, 사전에





점검 안내문을 보내 통보를 했는데도 수많은 부재 가구들... 이 모두가 그녀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다. 운 좋게 아직까지 사나운 개에 놀란 적은 없지만, 다른 남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강화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많이 당한다고. 아, 여기 사람들 이런 고생들을 하는구나.

물론 인정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경우가 없을 수 없다. 날씨가 차다며 차 한 잔 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든든한 말씀으로 격려를 보내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풀어진다고요. 그녀의 눈빛이 깊고 맑아 보인다.

애인은 있을까. 입으로는 연애할 시간도 없다며 약간의 투정 비슷한 말씨를 흘리는데 어찌면 그 말이 맞을 듯싶다. 조혜경 씨는 언니 둘과 부천시에 살고 있다. 부모님은 고향 상주에 계시는데 두 분 모두 교육자이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같이 있는 큰언니도 교사. 어쩐지 아가씨가 매우 조신하고 성실한 태도와 단정한 말씨를 보이더라니.

일반 사무직 외에는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이른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문을 연 것이다. 좀 전에

한 그녀의 설명을 세분해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용 설비의 검사,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검사, 일반용 전기 설비의 점검 등의 일을 한다. 일반용 전기 설비라는 것이 가정집 점검인 셈이다. Ever Safety! 그것이 여기 임무이고 업무인 것이다.

“아주 행복해요. 이 직업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얼핏 스쳐보는 것뿐이지만 사람 사는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삶이 무엇인지..., 저 철학자 다 됐죠? 또 회사 내 웃어른들,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 모두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시고 사명감이 있으시고..., 점검팀에 여자가 저 하나라고 잘해 주셔서..., 정말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두고두고 고마워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총책임자인 이기철 본부장이나 조혜경 씨 직속 점검1팀 우수현 팀장이나 모두 지나칠 만큼 친절하다.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친절과 고마움을 이 쪽도 마찬가지로 느낀다. 마음에 전등불이 켜지는 느낌. 같이 간 사진작가가 그토록 부산했던 것도 환하고 따뜻한 불이 그의 마음에도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정문을 나서며 흘끗 돌아본다. 따라 나와 배웅하던 노란 봄꽃 한 송이가 해사한 모습으로 유리문 안으로 들어간다. ♪

한 줌 재로 사라진 내가 만든 나무

〈햇님과 달님〉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지요. 초등학교 연극제 때 이 동화로 연극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누이 중에서 여동생 역할을 맡았거든요.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가 호랑이에게 쫓겨 결국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지요. 이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오누이를 구해준다는 내용! 하지만 저희 오누이가 나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늘에서는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 위에서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버렸지요. 나름대로 패러디를 한다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연극에서 사용하던 나무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통나무를 가져와 거기에 나뭇잎을 붙이고 가지를 붙였어요. 나무를 일컫켜 세우는 것은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만드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극이 끝난 후, 그 나무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걸 보게 되었을 땐 참 슬펐어요. 키운 나무가 아니라 만든 나무라서 애정이 될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만든 나무. 그 나무가 참 기억에 남아요.



김효정_남구 학익2동



나무는 무얼 먹고 사나?

난 우리집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이다. 아내와 두딸이 아빠라는 나무의 그늘 밑에서 때로는 깔깔 소리를 내며 즐거워하다가도 이내 서글픈 표정까지 지어가며 눈물방울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니 아빠 나무는 무얼 먹어야 수많은 잔가지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까? 참 고민도 많았다. 엄마 나무와 아기 나무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불행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난 날들, 가진 돈을 다 날려 당장 끼니를 걱정하게 된 사연과 더불어 이 땅이 싫어 다른 세계를 꿈꾸던 마음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깨달았다. 남보다 좀 더 잘해보겠다고 앞세운 욕망은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번번이 무너져 버려 아내마저 곁에서 지켜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오늘날까지 묵묵히 제 자리를 버텨내준 아내라는 사랑의 나무가 있었기에 지금껏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곳곳이 살아나가고 있음을 감사한다. 아빠 나무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며 행복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한 아내와 두 딸나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사랑거리는 봄바람처럼 애교부리는 엄마 나무처럼 될 수는 없지만 비록 무뎡뎡하여도 믿음직스럽게 옆을 지켜주는 커다란 나무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고우석_서구 마전동

나무들이 죽을 것 같대요

우리 집 마당은 울타리 하나 없는 험렁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공티인줄 알고 자기 차를 함부로 주차해 놓고 가버리곤 했다. 처음엔 너무나 화가 났다. '왜 남의 집 앞에 함부로 차를 세우고 가는거야?' 하면서 혼자서 난리를 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나무들을 심기로 했다. 대추나무, 무궁화나무 그리고 장미나무 묘목들을 말뚝처럼 심어 놓았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지도 뻗고 잎과 꽃이 피고 나면 자연스러운 울타리가 될거란 생각에 기분도 좋아졌다. 특히 장미나무를 심어 놓은 게 가장 뿌듯했다. 평소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났을까. 너무나 꼼찍하게 살해당한 장미나무를 보았다. 나무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다. 마치 수십 개의 나무젓가락들이 땅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였다. 누군가가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밟아버린 것이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자두와 살구 그리고 복숭아 묘목이 자라고 있다.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 온 놈들이다. 이번엔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했다. "트랙터 좀 살살 모세요. 나무들이 트랙터만 보면 죽을 것 같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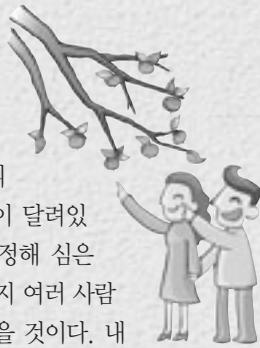
구본선_강화군 교동면

감나무 가로수

주안도서관 오르는 도로 양쪽에 꽤 긴 감나무 가로수길이 있다. 아마 관련기관에서 도시 미관용으로 심어놓았을 것이다. 작년 내내 그 길을 다녔다. 잎이 피고, 꽃이 피었다지고, 긴 여름 내내 매미들이 서로 제 영역이라 주장하며 목청 높이던 감나무들이 보기 좋았다. 마치 허드렛물처럼 자주 질금거리는 긴 장맛비에 도, 미치광이 태풍에도 제 열매를 지켜낸 깨끗한 감나무의 감들이 푸른 껍질을 노랗게 물들이며 익어갔다. 한가위를 막 넘긴 무렵부터였을까.

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지가 행하니 빈 나무들이 전연되듯 늘어만 갔다. 얼마안가 쉽게 꺾어 내릴 수 없어 포기한 덕분에 감나무치레나마 유지한 몇 나무를 제외하곤 모두 험벗은 채 서 있었다. 그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이른 시간에 지나가다 까치밥으로 남겨놓았을 리 없는 상가지 끝의 감을 마저 따고 있는 사람을 목격한 것이다. 그 나무의 바로 앞집 남

자였다. 길가 건물들 거의가 상점
 이니 많던 감들은 가게 주인들이
 기득권삼아 다 뺏을 것이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이라서 남이 따가기
 전에 챙겨야 한다고 더 서둘렀으리
 라. 모든 것이 그렇듯 감나무는 감이 달려있
 을 때 가장 감나무답다. 가로수로 정해 심은
 이유도 아마 풍성한 가을 늦 바닷까지 여러 사람
 들이 함께 즐기며 아끼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내
 집 앞에 있는 거니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앞서 가을 내내 탐
 스런 감이 매달려 있음으로써 자기 집이, 혹은 가게가 훨씬 아름
 답고 돋보인다는 생각까진 못했던 것일까. 봄이다. 다시 그 감나
 무엔 잎이 피고 꽃도 피고 탐스러운 감이 열릴 것이다. 부디 올
 해는 그 나무들이 가을 늦도록 모두 감나무답게 서있기를 바라
 는 마음이다.



박정순_부평구 삼산동

나의 옛친구, 플라타너스

제가 살던 고향 마을엔 아주 큰 플라타너스가 있었어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아니었지만, 해마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
 들어 주었지요. 할아버지들은 그 아래에서 장기를 두시고, 할머
 니는 콩나물을 다듬었어요. 맴뎌 거리며 우는 매미가 활개를 치
 던 어느 여름, 저와 제 친구는 매미를 잡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몇 분 후에 매미를 잡고 다시 아래로 내
 려오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나무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 있
 었어요. 저와 제 친구는 너무 무서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요. 다행히 지나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말
 이죠. 고향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었던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플라타너스였어요. 하지만 이젠 그 나무가 보이
 지 않네요. 몇 해 전 동네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싹둑
 잘라가 버렸거든요.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
 나무의 죽음에 아주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그 나무와 똑같이 생긴 나무를 나의 고향에 심을 거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고향의 플라타너스가 아주 많이 그리됩니다.

우상민_부평구 청천2동

나의 동반자 나무

몸이 아파 고직에서 물러 난 뒤 시골에서 오랜 세월 농사일을 돕
 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언니의 권유로 인천으로 올라온
 지 삼년 쯤이다. 처음엔 전원생활에 문혀 살던 내가 도시에서 무료

하지 않을까 고민도 있었지만 글을 쓰고 근처 학교 운동장을 걷
 고 뒷산을 오르내리길 반복하다 보니 시골에서 보다 오히려 건
 강이 좋아졌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레 나무에 눈이 간다.
 나무마다 새며 종류가 다양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겉으로 드러난
 흠집들도 종종 눈에 띈다. 흠집 있는 나무를 보면 저 나무도 나
 처럼 어딘가 아픈가 보다 안쓰러워 한번 어루만져 주고픈 생각
 이 드는 건 아픔을 겪고부터 생긴 변화다. 나무들은 아픔을 어떻
 게 견뎌낼까? 사람들처럼 수근대며 없는 사람 뒤에서 흥보지는
 않겠지? 애초부터 한 자리에 터를 잡고 서서 세월 따라 나이테
 한 겹 씩 안식처가 되고 있는 나무의 포용력 때문에 인간의 벽과
 부딪칠 때마다 산을 올라 나무를 만났다. 주로 혼자서. 그러나
 나무의 옹이들을 보면서 세월을 견디며 굶은날을 거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나무들도 속울음을 울고 있었구나 깨달았다. 빗물
 을 받아 마시며 쓰러지지 않기 위해 뿌리를 더 견고히 한 채 속
 아픔을 이로운 공기로 바꿔 내뿜으며 자신을 찾는 이들을 따뜻
 하게 포용해 주는 나무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무들이 들려주는 세월의 소리들은 겸손함
 을 배우게 하고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며 얼굴표정 또한 부드러
 게 만들어 준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내는 소곤거림은 어느새
 흥겨운 노랫가락이 되어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슴속에서 우러나
 오게 만드는 마법도 지녔다. 꽃샘추위도 누그러지고 나면 산은
 울긋불긋 꽃단장과 함께 그동안 허전했던 나뭇가지마다 연초록
 풀빛을 띄우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 나 또한 사람들 틈에 끼
 어 나무들이 들려주는 세월의 소리를 듣기 위해 산을 오르겠지.
 홀로 산을 올라도 외롭다 느끼지 않는 것은 산을 이루는 나무들
 이 나에겐 누구보다 친절한 벗이요, 깨우침을 주는 동반자인 이
 유이다.

신미순_계양구 효성1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가족'

다음달 테마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
 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1만원권 3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_440-2072)

2007년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열립니다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이웃간의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고 어린이, 학생들의 환경교육 및 경제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며, 수익금의 10%는 소외계층에 환원됩니다. 2007년에도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가 계속됩니다.



- 사업기간 : 4월~10월(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 7, 8월(혹서기) 및 우천시 미개최
- 장 소 : 인천중랑공원(인천버스터미널 건너편)
- 참가자격 : 시민, 가족, 동호회, 유치원, 초·중·고생, 비상업적 일반단체
 - 물품은 개인당 80점 미만으로 한정하고 상업적 판매행위 금지
- 참가신청 및 준비물
 - 예약신청 : 나눔장터 홈페이지(www.happynaum.com)
 - 현장접수 : 행사당일 행사장에서 선착순 접수(당일 12:00~)
 - 준 비 물 : 돗자리, 신분증(참가대표자)
- 참여물품 : 사용가능한 모든 생활용품
 - 의류, 도서, 완구류, 신발류, 잡화류, 생활용품, CD, 비디오테이프 등
- 월별 나눔장터 운영계획

일 정	월별 이벤트 운영 테마
4월 14일	- 나눔장터 개장행사 - 우리집 안 입는 옷 재활용, 교복 무상기증
4월 28일	폐현수막 재활용
5월 12일	페트병을 이용한 실내 화분 만들기
5월 26일	DIY 가구 재활용
6월 9일	컴퓨터 재활용
6월 23일	가방, 우산 수선 및 재활용
9월 8일	구두 재활용
9월 22일	재활용품을 이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10월 13일	종이 재활용
10월 27일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 ※ 중·고생 교복(동복, 하복, 체육복) 무상기증 행사(4월 14일 나눔장터) 기증교복은 세탁·수선후 해당학교에 무상기증 예정임
- ※ 일정 및 테마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안내 및 기타문의 : 시 폐기물자원과 재활용팀(440-3573), 인천YWCA 나눔장터(424-0524)

4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위해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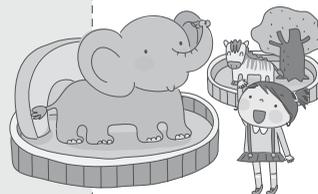


- 기간 및 장소 : 4월 16일(월)~4월 20(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내과 3)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고지혈증검사
- 검진인원 : 50명
-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내과3(580-6027),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인사팀(580~6651~3, 580~6478)

동물교실과 동물원관람 프로그램

인천대공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을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하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동물교실과 동물원 관람객들에게 전시동물의 생태와 습성 등을 설명해주는 동물원 관람객안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 기간 : 4월 3일(화)~11월 30일(금) 화요일~토요일
- 장소 :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 대상
 - 어린이 동물교실 - 유치원, 보육시설 등 단체
 - 관람객 프로그램 - 유치원·보육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 수강료 : 무료
- 접수
 - 어린이 동물교실-3월 19일~접수 완료시까지
 - 관람객 프로그램- 당일 선착순 접수 후 안내 실시
- ※ 교육당일 우천 등으로 미 교육 시 교육일정 협의 후 실시
- 교육시간
 - 어린이 동물교실 - 1회차 : 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 30분
2회차 : 오후 12시 30분~오후 1시 30분
 - 관람객 프로그램 - 1회차 : 오후 2시~오후 3시
2회차 : 오후 3시 30분~오후 4시 30분
- 교육내용
 - 어린이 동물교실 - 시청각교육, 토끼, 염소 등 관찰 및 먹이주기
 - 관람객 프로그램 - 동물원 전시동물의 생태와 습성 등
- ※ 동물교실 미 접수 시에도 어린이동물원 자체관람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시 동부공원사업소 (440-4953)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등 지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생활자금 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
- 재활 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생(매년 3월, 9월 신청), 특기장학생(매년 3월 신청)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 미만 유자녀	월 20만원/인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교재학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
재활보조금 지급	1~4급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월 15만원/인	1년 단위로 지원하며, 기간 만료 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피부양보조금 지급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월 15만원/인	"
장학금	중학생	분기별 20만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장학금 (3월 신청 : 4월, 5월) (9월 신청 : 10월, 11월) • 특기장학금 (3월 신청 : 4월, 5월, 8월, 11월)
	고등학생	분기별 30만원/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학금은 3월, 9월
- 신청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80-749-7171, 833-6700)
담당자 : 윤진형, 문선희

운전면허관련 정보 알려드립니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안내 :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제1종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제2종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경과된 기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므로 운전면허증상의 기재사항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서비스를 이용하여 적성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 : 1577-1120(시험장에 방문하여 본인인증번호를 신청하시면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dla.go.kr(사이버민원 → 적성검사(갱신)기간조회)

• 모바일서비스 : 휴대전화를 이용한 운전면허정보 조회

※ 신청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이용

- 평일 운영시간(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 토요일 민원실 운영(공휴일, 국경일 제외) : 매주 오전 9시~오후 1시
- ※ 적성검사 등 민원신청만 가능하며, 시험진행은 하지 않음
- 토요일 특별시험 : 매월 2째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 오후 1시 이후에는 시험업무만 진행

■ 문의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811-0113)

과학의달 기념, '비타민' 교수님 만나세요

과학의달을 맞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바이오 산업 혁신기반강화 국제심포지엄' 이, 4월 28일에는 대중강연이 열립니다.

- 행사명 : 대중강연
- 일시 : 4월 28일(토) 오전 10시~11시 50분
- 장소 : 송도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 2층
- 강연내용
 - ① '식단혁명' 먹는 습관을 바꿔라 (강사 한영실 숙명여대 교수, KBS2 비타민 고정출연)
 - ② 영화속의 BT이야기 (박태현 서울대 교수)
- ※ 참여 시민 행사 기념품 증정
- 오시는 방법 :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 3번 출구에서 시내버스 6번, 6-1번 이용 → 송도국제도시내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21층 건물) 앞 광장
- 문의 : 시 과학기술과(440-2811~4), (재)송도테크노파크 정책연구실(260-0731, 0732)

인하대병원 건강강좌 열립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 건강강좌를 엽니다. 강좌에 참가한 분들께서는 무료주차권이 발급됩니다.

- 강좌내용 : 아토피의 피부관리
-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3시 ~ 4시 30분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교수 : 피부과 신정현교수
- 문의 :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890-2640~2)

동구청소년수련관 주5일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직업탐방 / 정보화활동 / 미술반
- 신청기간 : 4월 13일(금)까지
- 참가자격 : 직업탐방 / 정보화활동 / 미술에 관심있는 청소년
- 프로그램 실시 : 4월~11월(놀토에 활동)
- 프로그램 내용



직업탐방	서비스전문직(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기획전문직(광고홍보) 직업탐방
정보화활동	웹 기획 및 웹페이지제작, 웹진 개발 등 청소년 웹 제작자 교육
미술반	카드미술, 생활도구 미술, 스펀지 미술 등 미술실습

- 신청 및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761-1318)

좋은 카운슬러 되기 프로젝트

청소년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세대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상담사이여야 합니다. 인천관내 학부모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속에서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제 : 청소년, 그들을 이해하자! 그들과 대화하자!
- 일시 : 4월 16일~5월 4일(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 오후 1시

회기(일시)	강의주제	강사
1회(4월 16일)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	최한나 (인천시청소년상담센터 소장)
2회(4월 18일)	약물상담	권영실 (인천시마약퇴치본부)
3회(4월 20일)	진로	이은경 (가톨릭대 의과대학 BK사업단)
4회(4월 23일)	학업	조가영 (연우심리연구소)
5회(4월 25일)	정신건강	이경은 (중앙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
6회(4월 27일)	학교폭력	이유미 (방배유스센터)
7회(4월 30일)	청소년과의 대화법 I	김형수 (서울대아동청소년상담실)
8회(5월 4일)	청소년과의 대화법 II	

- 신청방법 : 선착순 40명
 - 1차 : 전화 신청(429-5562~3)
 - 2차 : 입금(초금 3만원)
 - 3차 : 입금 확인 후 기관에서 연락이 되면 확정
- 문의 :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429-5662~3)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참가하세요

제5회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가 열립니다.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4월 28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우천시 1주일 연기)
- 장소 : 인천대공원(남동구 장수동) 자전거 광장 일대
- 참가대상 : 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및 학부모(참가비는 받지 않으며, 참가자에겐 푸짐한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 주제 : 당일 안내
- 접수 : 4월 28일까지 전화접수(행사 당일도 접수 가능하지만 기념품 지급 관계로 사전 접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주최 : 경인일보, 가천문화재단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예술평화단체총연합회, 인천상공회의소, 각 지역교육청, 각 기초자치단체 등

아울러 제4회 인천 꽃 전시회가 열립니다.

- 일시 : 4월 28일(토)~5월 7일(월)
- 장소 : 인천대공원 꽃전시관
- 내용 : 인천의 역사와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인천의 모습을 꽃으로 형상화
 - 개막공연 4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
 - 주요 이벤트 : 비보이, 청소년 어울마당 등
 - 시민 프로그램 : 함께 해요, 분재(분재교실) 등
- 참가 및 문의 : 경인일보 (861-3200~6)

화수청소년문학의집 프로그램 참가하세요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토요일업일의 체험학습, 나들이에 참가하세요.

- 대상 : 초등 1학년~초등 4학년 20명
- 일시 : 4월 28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30분
- 활동내용 :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침출수처리과정과 유리 온실 견학
- 활동장소 :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서구 백석동)
- 참가비 : 7,000원
- 한편 2007년 제2회 청소년탁구대회가 열립니다.
 - 일시 : 4월 14일(토) 오후 2시~오후 4시
 - 장소 : 화수청소년문학의집
 - 대상 : 중 · 고등학교생
 - 모집인원 : 16명(단식)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현장
(<http://cafe.daum.net/hhwassoo>)
 - 문의 : 화수청소년문학의집(762-7942)

아시안게임유치기원 벚꽃축제 열립니다

인천대공원에서는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기원하고 문화예술과 시민들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벚꽃축제를 엽니다.

- 축제기간 : 4월 9일(월)~4월 15일(일) / ※ 이벤트 행사일 : 4월 14일(토)~4월 15일(일)
- 장 소 : 야외극장
- 주요행사 : - 문화행사 : 남사당 놀이, 송승환의 난타, 뮤지컬 년센스
 - 특별행사 : 베누스토 윈드 오케스트라, 스페이스 캣 & 버들, 댄스 공연, 군악대 퍼레이드, 시민건강생활한마음대회
 - 축하행사 : 불꽃놀이, 시민장기자랑
- 세부행사일정 ■ 문의 : 시 동부공원사업소(440-4975)



일 자	시 간	행 사 명	일 자	시 간	행 사 명
4/14 (토)	13:00~17:00	시민건강생활 한마음 대회	4/15 (일)	14:30~16:00	시민장기자랑
	17:30~18:00	군악대 퍼레이드		16:00~17:30	남사당 놀이
	18:00~18:40	스페이스 캣&버들		17:30~18:30	댄스공연
	18:40~19:50	베누스토 윈드 오케스트라		18:30~20:30	뮤지컬 년센스
	19:50~20:00	시장, 시의회 의장 축하 메시지			
	20:00~20:05	불꽃놀이			
	20:05~20:35	송승환의 난타			



우리말 '똥' 바로 알기

웃을 다리다?(○) / 웃을 달이다 (X)

'웃을 예쁘게 달여 입었다'에서 '달여'는 '다려'로 써야 합니다. 간장 따위를 끓여 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웃을 다리다'와 '다리다'는 웃의 구김을 펴는 것을 말하고, '달이다'는 한약이나 '약을 달이다, 간장을 달이다'로 구분하여 씁니다.

이달의 국가유공자 최선화(崔善嬋)



최선화는 인천(仁川) 사람이다. 1931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6년 상해로 건너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다 퇴학하고 흥사단에 가입하여 1937년 5월에는 광주(廣州)에서 흥사단 제24회 창립기념식을 갖기도 하였다. 이 무렵 임시정부 재무차장이던 애국지사 양우조를 만나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뒤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임시정부를 적극 뒷바라지하였으며, 동년 6월 임시정부가 광서성 유주(廣西省柳州)에서 사천성 기강으로 이전한 뒤에는 교포 부인들을 단합시켜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결성하는 준

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3년 2월에는 다시 임시정부를 따라 중경(重慶)으로 옮겨가, 기미년 3·1독립운동 직후에 조직되었던 애국부인회의 재건운동에 착수하여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한국 애국부인회의 재건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서무부장에 선출되었으며, 회장에는 김순애(金淳愛)가 추대되었다. 이들은 임시정부를 도와 각 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였는데, 방송을 통하여 국내외 여성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위문품을 거두어 항일전선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을 위문하는 한편 여성과 청소년들의 계몽과 교육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적을 인정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430-0125)

연평도가 그리운 '밥도둑',
조기



사람의 기(氣)를 돕는 생선이라는 뜻으로 조기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고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맛이 좋고 몸에 이롭다. 특히 곡우절(4월 20일 무렵)에 잡힌 조기는 '오사리조기' 또는 '곡우살조기'라고 하며 이로 만든 굴비를 '오사리굴비'라고 하는데 맛이 뛰어나다.

조기를 잡는 대밭은 지금부터 330년 전에 연평도에서 임경업 장군이 처음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임 장군이 명나라로 밀파되어 가던 중 연평도에 들러 식수, 소금, 반찬 등을 가득 실은 후 선원들에게 산에서 엄나무를 베다가 대밭 모양의 밭을 만들어 해안 암석 중간에 꽂아놓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수천 마리의 조기가 엄나무 밭에 걸려 있었다. 이를 잡아 소금에 절여 배에 실은 후 다시 출항하여 중국에 건너갔다고 한다. 이것이 조기를 잡는 어구의 시초이기도 하고 오늘날 연평도 조기잡이의 시작이기도 하다. 매년 연평도에 운집하는 어부들은 조기잡이 전에 임장군 사당에 참배하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한국연안에서 잡히는 조기류는 13여 종 정도이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참조기와 수조기이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2014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14 아시안게임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 인천시청 운동장에서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시민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5000여명의 시민과 성도들은 한반도에 복음이 맨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 아시아인의 화해를 보여주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인천성시화운동본부장 최성규 목사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인천시민과 인천을 사랑하시며 인천을 통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전제한 뒤 "영적 자유가 시작된 복음개항 1호인 인천은 과거를 넘어 미래가 열린 곳으로 이번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전 아시안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평화를 일구자"고 역설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인천시민대표들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인천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이 기도회를 맞아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송도국제도시 건립과 인천대교 및 인천타워 건설 등으로 인천은 동북아 허브도시로 손색이 없다"며 "이곳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전 시민과 교회가 기도로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하장원 시 공보관실

여유로운 예식...인천 최고의 웨딩홀...
-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웨딩홀

파라다이스만의
특별한 선물...

- 예식 당일 Suite Room 1박 무료제공(조식2인 포함)
- 객실 내 웨딩케이크 & 와인 제공
- 호텔 → 인천국제공항 Sending Service
- 예식 식사 4인 무료시식
- 결혼 1주년 기념일 무료숙박권 제공

- 폐백실, 혼구용품, 예식연출 일체 무료제공
- 하객용 셔틀버스 무료제공
- 레스토랑에서 웨딩 After Party시 식음료 20% 할인
- 주중 및 일요일 저녁(17시 이후) 예식시 식사 15%, 음료 20% 할인
- 허니문 베이비 돌잔치 예식시 식사 15%, 음료 20% 할인

First in Service



PARADISE HOTEL
INCHEON

A member of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파라다이스사파리파크호텔 케냐

연회장명	평	세미나(인원)	연회(인원)
다이아몬드 볼룸	265	500	500
에메랄드홀	110	250	200
사파이어홀	103	200	180
토파즈홀	60	80	80
루비홀	30	60	60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웨딩은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빛날 당신을 위해 세심한 부분 하나 하나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예약 및 문의 : 032-452-8282~3

*자세한 사항은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홈페이지 www.incheon.paradisehote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